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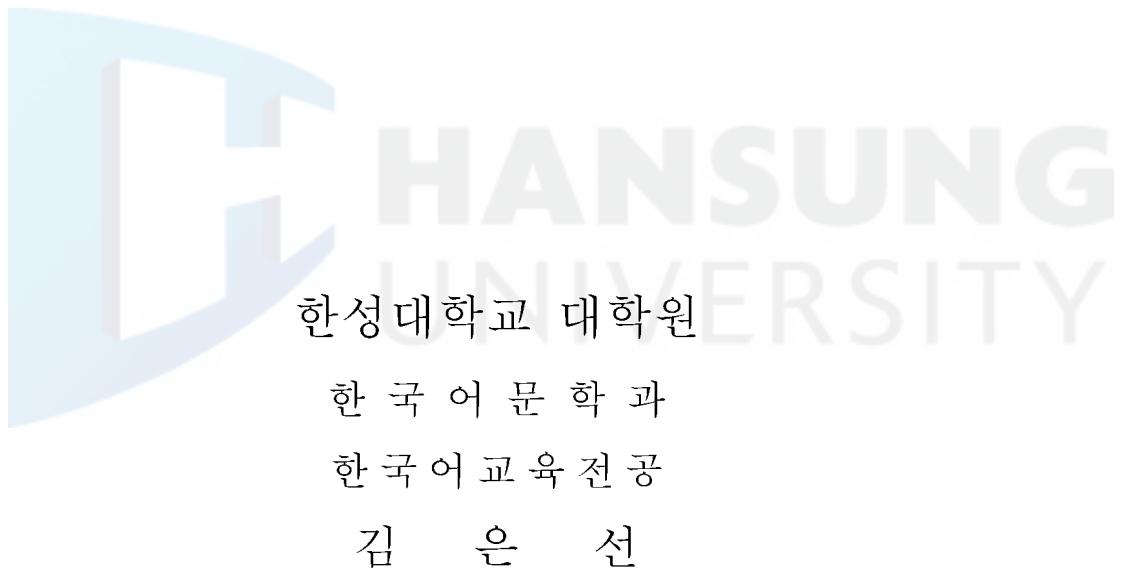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한중일 공통 설화 텍스트를 통한
세시풍속 교육연구

-‘견우직녀’를 중심으로-

2012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경숙

한중일 공통 설화 텍스트를 통한
세시풍속 교육연구

-‘견우직녀’를 중심으로-

A Study about Seasonal Customs Education through the
Common Traditional Tale

-Focusing on A Tale of ‘Gyun-woo and Jing-nyuh’-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김 은 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경숙

한중일 공통 설화 텍스트를 통한
세시풍속 교육연구

-‘견우직녀’를 중심으로-

A Study about Seasonal Customs Education through the
Common Traditional Tale

-Focusing on A Tale of ‘Gyun-woo and Jing-nyuh’-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김 은 선

김은선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한중일 공통 설화 텍스트를 통한 세시풍속 교육연구 -‘견우직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김 은 선

본 논문은 견우직녀 설화와 칠석 세시풍속의 한중일 비교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점을 찾아보고 앞으로 한국어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에서 적극 활용하기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견우직녀 설화는 동아시아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텍스트이다. 2장에서 공통설화 텍스트와 공통 세시풍속에는 무엇이 있고, 현재 교재에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통으로 존재하는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선형지식을 갖게 해 주기 때문에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와 문화에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돋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중국 일본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견우직녀 설화는 한국어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견우직녀 텍스트를 비교해보고 세 시풍속도 비교하여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칠석 세시풍속 또한 설화로부터 유래된 풍속으로 한중일 세 나라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의 풍속에 비해 현대의 풍속은 많이 변화하였고, 현재 세 나라에서 칠석을 지내는 풍속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의 칠석 풍속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져왔으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고유의 행사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칠석 세시풍속을 이용한 한국의 문화교육도 필요하다.

4장에서는 설화에서 유래된 칠석 풍속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세시 풍속을 통해 학습자는 직접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할 수 있고, 현장학습 이후에는 다시 교실에서 과제활동을 통해 언어를 익힐 수 있으므로 칠석 풍속은 유용한 한국어 학습 소재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아직 한국어 교육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세시풍속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한중일 공통 설화와 풍속이 결합된 형태의 언어교육 텍스트와 문화 교육 소재를 재발견해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한국전통, 설화, 견우직녀, 칠석, 문화 교육, 세시풍속, 한중일, 한국어교육, 공통 텍스트, 동아시아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선행연구 및 현황	5

제 2 장 한국어 교육과 설화 10

제 1 절 한중일 공통 텍스트 교육의 필요성	10
제 2 절 세시풍속의 개념과 교육의 필요성	11
1. 세시풍속의 개념	12
2. 세시풍속 교육의 필요성	15
제 3 절 본고의 대상 작품	17

제 3 장 ‘견우직녀’ 텍스트와 삼국 세시풍속 비교 23

제 1 절 ‘견우직녀’ 텍스트 비교	23
1. 삼국의 전승 경로	23
2. 삼국의 ‘견우직녀’ 텍스트 제시	25
3. 삼국 공통설화로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32
제 2 절 ‘견우직녀’ 설화의 세시풍속으로서의 한중일 ‘칠석’ 비교	37
1. 과거의 세시풍속	38
2. 현재의 세시풍속	43

제 4 장 현대 ‘칠석’ 풍속의 교육적 효과 51

제 1 절 ‘칠석’ 문화교육의 학습대상자	51
------------------------------	----

제 2 절 문화현장의 체험과 교실 내 활동의 학습효과	52
1. 체험 전 학습 활동과 효과	52
2. 문화현장의 체험 학습효과	53
3. 체험 후 학습 활동과 효과	54
제 3 절 한국어교재에 ‘칠석’ 문화텍스트 구성의 효과	55
 제 5 장 결 론	57
 【참고문헌】	60
ABSTRACT	65



【 표 목 차 】

[표 1] 한·중·일 세시풍속	14
[표 2]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중일 공통 설화	17
[표 3] 한중일 공통 세시풍속	18
[표 4]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국 세시풍속요소	20
[표 5] 현대 칠석 문화 축제	4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 교육의 경향은 기존의 문법 중심 교육에서 현재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그에 따라 실생활에서 말하기를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문화를 알아야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를 잘할 수 있다는 이론이 생겨났다.¹⁾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을 통한 말하기 교육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많은 한국어 교재들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뿐 아니라 문화와 언어 교육을 위해 고전문학 텍스트도 수록하고 있고, 그 중 동아시아 공통의 텍스트도 수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석, 설날과 같은 민속 명절도 교재에 수록하고 있다. 고전문학은 한국인의 전통적 정신이 형상화되어 있어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 좋은 읽기 자료가 될 수 있다. 세시풍속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 세시풍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생활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세시풍속은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로서의 한국어 교육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재에는 다양한 설화와 세시풍속이 수록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대부분이 중국학습자와 일본학습자인데 그들이 교재에 수록된 설화를 보고 자국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중·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중국인의 방송 내용만 봐도 이러한 경우가 많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국인 출연자는 견우직녀 이야기를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을 본 진행자가 한국 방청객들에게 견우직녀 이야기가 한국

1) 이것을 문화교수법이라고 하는데, 문화 교수법이란 한국어에 나타나는 문화적인 특징들을 찾아내어 교수에 접목시키는 것과 학습자의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 문화적인 측면을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교수 방법이다. (한재영 외, 2005:33참조)

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모든 한국 방청객이 손을 들었다. 2) 사실 견우직녀 설화는 한국과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베트남까지 공통으로 존재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자국에만 존재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습자에게 공통의 텍스트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견우직녀 이외에도 동아시아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많은 설화텍스트들이 있는데,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국 설화 텍스트를 본 외국인 학습자 가운데에는, 이를 자국의 설화 텍스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 뿐만 아니라 위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 또한 여러 나라에 퍼져있는 설화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동아시아 학습자의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한국인 교사 또한 동아시아 공통설화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통 설화 텍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그 양상을 교사가 확인하고 학습자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교사가 학습자에게 학습자 나라와 우리나라 설화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세세하게 교육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올바른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학습자가 본

2) KBS 방송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 86회
중국인 은동령과 한국인 남희석, 일본인 사유리의 대화 일부

은동령: 7월 7일은 무슨 축제예요?

남희석: 7월 7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칠월 칠석이라고 해서
은동령: 칠석?

남희석: 네 칠월 칠석

은동령: 혹시 남자 한명 하늘에서 별 하나 그리고 여자하나 별 하나 되고 7월 칠일 뭐 까
치 이렇게 다리 만들고 이렇게 일 년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그게 중국 거예요.

남희석: 중국 거예요?

은동령: 중국 거예요.

사유리: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비슷해요.

남희석: 일본도 있다. 일본 거다?

은동령: 중국 거예요.

남희석: (방청객에게) 견우와 직녀는 우리나라 이야기다?

방청객: (전원 손들)

은동령: 아니에요.

남희석: 지금 거의 백퍼센트 가깝게 우리나라의 견우직녀 이야기다.

은동령: 아니 지금 장난해요? 중국 것인데?

남희석: 사유리 씨 아세요? 견우직녀 이야기?

사유리: 알아요. 너무 유명해요. 감동했어요. 일 년 한번만 만날 수 있어요. 응, 똑같아.

인의 나라의 설화라고 주장하거나 설화에 대해 질문할 경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설화가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각 나라별로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형된 설화에 공통점과 차이점 양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별로 유사한 텍스트가 존재함으로 해서 외국인 학습자나 한국인 또한 본인의 나라의 것으로만 차각한다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공통 텍스트에 대한 교육이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공통 텍스트에는 그 안에 인간의 공통의 요소들 즉, 사상, 감정 등이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학습자에게 자국과 한국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텍스트라는 인식이 생긴다면 학습자는 좀 더 학습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의 선행 지식을 바탕으로 더 활발한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공통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긴 세월동안 각 나라에서 행해온 풍속 또한 우리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문화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 유사한 설화가 존재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존재하는 세시풍속이 있다. 유사한 기간에 유사한 명칭의 풍속이 존재하는데 현재 행하고 있는 풍속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새해에 물만두(餃子)를 먹지만 한국은 떡국, 일본은 떡과 닭고기를 끓여 만든 오조니(お雑煮)라는 음식을 먹는다.

세시풍속을 교육의 중요성은 외국어 교육에서 그 나라 기념일을 교육하는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영어 학습을 할 때 학습자는 미국 문화에 대한 학습을 함께 하게 된다. 이 때 학습하는 기념일로는 신년(New Year's Day, 1월 1일), 성 발렌타인의 날(St. Valentine's Day, 2월 14일), 만우절(April Fools' Day, 4월 1일), 할로윈 (Halloween, 10월 31일 밤),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11월 넷째 주 목요일), 크리스마스(Christmas, 12월 25일) 등이 있다. 일본어 학습을 할 때에도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일본의 풍습을 배우게 된다. 특히 일본어의 경우 언어교육을 할 때 풍속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사 일본어사에서 나온 일본어

교재인 『일본어가 말랑말랑』이라는 교재를 보면 정월(正月, 1월 1일), 히나마쓰리(ひな祭り, 3월 3일), 코이노보리(鯉のぼり, 5월 5일), 칠석마쓰리(七夕祭り, 7월 7일), 오봉(盆踊りを踊りましょう, 8월 15일), 시찌고산(七五三, 11월 15일)에 대해 수록하고 언어와 함께 문화를 교육하고 있다.³⁾ 예를 든 교재가 문화와 함께 언어를 교육하자는 취지로 만든 교재이지만 한국에서 출판된 다른 일본어 교재들도 위와 같은 세시 풍속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외국어 교육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한국어 교육에서도 다양한 세시풍속을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세시풍속은 거의 추석과 설날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풍속을 제시하거나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더욱 다양한 풍속을 제시하고 교육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대상이 되는 설화 텍스트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로 선정하였다. ①한·중·일 삼국에 유사하게 존재하는 설화이며, ②설화와 관련된 세시풍속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③현재 행하는 세시풍속이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시풍속으로는 견우직녀이야기를 유래로 발생된 ‘칠석’ 풍속을 선정하였다.

‘견우직녀’ 설화와 ‘칠석’ 풍속은 한국 중국 일본에 모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풍속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칠석 풍속의 경우 설화와 풍속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어 텍스트로서도 한국문화 풍속으로서도 교육의 가치가 있다. 현재 많은 풍습들이 예전의 풍속 그대로 행해지지는 않는 편이지만 이 풍습들은 현대에 와서 이 시대에 맞게 변형되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전통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화 교육의 대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어교육에서 칠석세시풍속이 적극 활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공통 설화의 교육의 필요성과 세시풍속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각각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동아시아

3) 김희정 외(2002), 『일본어가 말랑말랑』, 시사일본어사, pp.6~7, 22~23, 44~45, 72~73, 86~87, 118~119

공통설화인 견우직녀 설화는 칠석 세시풍속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하기에 적합한 텍스트이며, 공통 세시풍속으로서 칠석 또한 결코 사라져가는 풍습이 아니며, 한국어 교육에서 다양한 세시풍속을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더욱 교재에 적극 수록되고 교육되어야 하는 풍속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초급단계에서는 이미 추석과 설날에 대한 언급이 많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교재에서는 더 다양한 풍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2장에서 공통 설화와 세시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교재에 어느 정도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3장에서는 칠석이 어떻게 공통 설화가 되었는지, 얼마나 오래전부터 같은 배경 설화가 존재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과거와 현재 한·중·일에 존재하는 견우직녀 텍스트의 양상을 살펴본다. 현재의 견우직녀 텍스트에서는 각 나라에 설화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교사의 올바른 지식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견우직녀 설화의 세시풍속으로서의 ‘칠석’ 풍속을 비교 분석한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에서 행해지는 풍속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를 확인하고, 특히 현대 한국에서 칠석 풍속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칠석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다.

4장에서는 칠석 풍속이 한국어 교육에서 어떠한 활용점이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및 현황

설화와 세시풍속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설화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한 논문, 세시풍속을 이용한 교육에 관한 논문, 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한 논문들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 세시풍속과 설화를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각각 존재하나 이들 연구들에는 현대에 세시풍속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행해지고 있는지, 이러한 세시풍속을 한국어 교육에

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설화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논문으로는 안미영(2008), 이성희(1999), 김동환(2007), 이현주(2009)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도 이제 설화와 같이 다양한 텍스트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안미영(2008)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의의로 ①설화에 나타난 인간의 보편성을 발견함으로써 삶의 진실한 태도를 터득할 수 있다. ②설화는 말로 된 문학이므로 말로 존재하고, 말로 전달되며, 말로 전승되기 때문에 화자나 청자가 이를 통하여 말하기, 듣기 등의 언어능력을 키울 수 있다. ③설화는 민중들의 삶과 경험에서 우리나라나오는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적,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외국인 학습자에게 바른 문제 해결력,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즉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 ④설화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텍스트로 학습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⑤설화문학은 한국인 만의 특수한 정서를 알 수 있게 하는 텍스트 자료여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학적 감동을 줌과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데 좋은 교육적 자료이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 고전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문학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은 물론,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도 도달할 수 있게 한다. ⑥설화는 비교문화적인 학습방법으로 언어와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성희(1999)에서도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으로 ①한국인의 심성 이해, ②역사 문화적 어휘 이해, ③관습 예의범절 이해, ④이야기의 힘(흥미)을 이용한 학습 효과, ⑤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어떤 설화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계 공통 이야기, 한국 사람에게 보편적인 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흥미 있는 이야기, 수준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보이는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설화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주

인공의 행동, 주제 등에 대해 토론하기, 작품과 다른 결말의 내용 창작해 보기, 결말에 이어질 내용 창작해보기, 역할놀이, 현대를 배경으로 재구성, 연극/TV드라마 대본으로 구성하기, 낭독하기, 감상문쓰기, 편지쓰기'등이 있다. 다양한 활동을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창작하기 위주의 과제 활동중심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쓰기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낭독하기와 감상문쓰기로 어떻게 문화교육이 되는지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설화를 교육하는 것이 문화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서는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작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과제활동을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2007)에서는 공통 설화 텍스트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때의 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 비슷한 유형이 있는 텍스트를 공유텍스트로 설정하고 공유텍스트 중 광포설화인 '장자못 전설'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현주(2009)에서는 설화를 교재화 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자기나라의 이야기와 비교설명, 그림을 보고 흐름 파악, 연결하기, 작품 속 어휘 익히기, 접속사 이용해서 문장 잇기, 관련 속담 익히기'를 교육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 텍스트로 설화를 이용하지만 문화적인 요소를 교육하기보다는 텍스트의 어휘나 텍스트의 내용이해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구성하려 하지 않고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쉽다.

세시풍속을 교육에 적용한 논문에는 뇌뇌(2011), 이정민(2007), 김나리(2010), 최배영(2005)이 있다. 뇌뇌(2011)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 대조를 통해 세시풍속 중 추석에 대해 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전에는 세시풍속을 통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중 두 국가의 차이점 비교를 통해 문화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문화대조를 통해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은 문화 교육 방식 중에서도 새로운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의례, 풍속, 음식의 외적인 요소 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관념문화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풍속을 지내는 의미에 대해 교육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문화교육변용모델을 ‘가치선택단계- 궁지다지기단계-가치비교단계-가치실천단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 방안에서는 한중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해 하는 교육이 교사는 질문하고 학습자는 대답하는 학습자의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고, 그룹 토의나 발표 및 기타 과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문화교육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실천단계에서는 수업시간에 송편을 한번 만들어보았을 뿐 그것에 따른 어떤 문화 학습효과가 있는지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이정민(2007)은 세시풍속을 이용한 문화수업 모형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습자 등급별 나이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교육의 틀은 비슷한데, ‘읽기자료, 시청각자료제시, 전통음식 체험, 전통 놀이 체험, 과제활동’ 같이 문화교육모형을 제시하였다. 세시풍속을 구성하는데 있어 전통 음식과 전통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흥미롭게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 후 과제활동으로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언어적 활동을 연계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 방안으로 보인다.

김나리(2010)에서는 세시풍속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세시풍속 중 한국어 문화교재에 적합한 세시풍속 목록으로 설날, 한식, 단오, 유두, 칠석, 추석, 중양절, 동지를 선정하였다. 세시 풍속 목록의 선정 기준으로 ①현재까지 잘 전해진 세시풍속이다. ②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어야 한다. ③학습자의 모국의 문화와 비교·대조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만 있는 풍습을 다루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세시 풍습을 위주로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문화교육에서 세시풍속 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세시풍속을 교육해야한다는 측면이 본 논문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최배영(2005)에서는 비록 국내 초등학생 대상의 세시풍속 교육 방안이지만 풍속, 놀이, 음식으로 나누어 체험 학습의 세부적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에게도 적용할만한 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이은숙(2010), 김수현(2006)이 있다.

이은숙(2010)에서는 윤상철(2004)의 현장학습 운형 모형을 수정하여 문화체험 중심의 한국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는데, 외국인 학습자가 교실수업과의 연계를 전제로 문화체험을 더욱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①사전설명회→②문화체험(전문해설사 설명)/체험학습 병행→③퀴즈→④설문조사→⑤작문/사진전 시상→⑥문화체험자료집 작성’의 순서이다. 퀴즈나, 전시전, 자료집 작성을 통해 학습자가 문화 수업에 주도하는 위치에 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인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김수현(2006)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이 필요하며, 그 중 다루어야 할 문화 교육의 범위를 전통문화, 생활문화, 언어문화, 예술문화, 제도문화로 분류하였다. 전통문화는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우리의 문화가 점차 서구화되어가는 것에 반하여 한국적 특징을 알릴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며, 학습자 수준별 전통 문화 교육 항목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근래에 발표된 논문일수록 문화와 연계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설화와 세시풍속 교육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설화 교육의 필요성과 세시풍속 교육의 필요성은 각각 별개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세시풍속을 교육한 연구를 보면 한중 비교를 통한 추석의 교육을 연구한 뇌뇌의 연구가 전부이다. 김나리(2010)에서도 여러 풍속을 활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논문에서는 추석을 활용한 종이교재와 멀티미디어교재의 제작의 예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한국어 교재에는 주로 추석과 설날 위주의 명절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더욱 다양한 세시풍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세시 풍속 교육을 위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세시풍속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중에 배경설화가 존재하는 칠석 풍속의 교육이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장 한국어 교육과 설화

제 1 절 한중일 공통텍스트 교육의 필요성

이 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설화가 어떤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학습에 이점이 있는지, 왜 공통설화를 교육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설화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유형과 내용의 설화 텍스트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설화가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설화의 보편성은 학습자로 하여금 내용 이해가 훨씬 수월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설화 이야기 속에 담긴 사상을 공감하기 쉽도록 돋는다. 한국의 설화 텍스트와 모국의 텍스트가 발생론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유사하게 존재할 때, 학습자는 선행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배울 텍스트에 대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텍스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설화는 그 민족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특수성도 가진다. 설화는 오래전부터 구전되어오면서 그 지역의 정서에 맞도록 변형,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설화의 특수성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는 설화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한국과 자국 설화 내용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아시아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텍스트에는 견우와 직녀, 토끼의 간, 우렁 각시, 선녀와 나무꾼 등이 있다. 서구권과 유사한 이야기로는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장자못전설’과 기독교 문화권의 ‘소금기둥 전설’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편성과 특수성이 존재하는 공통 분포 설화를 교육하는 경우 한국 문화와 학습자 본인 나라의 문화를 비교 학습 할 수 있게 되고 양국 간의 문화 이해가 가능해진다. 또한 학습자가 이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수월하게 해줬다는 점들을 알 수 있다.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도 동아시아 공통의 텍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가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습자에게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보듯이 한국인 가운데서도 견우직녀 설화나 선녀와 나무꾼 설화가 동아시아에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본인 나라의 설화라고 주장하는 학습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공통 설화를 교육할 때 학습자는 동아시아 공통 유대감을 형성해 쉽게 한국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기본적인 지식(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현대사회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여러 문화의 유입과 그로 인해 다른 문화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문화상대주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어떤 특정 문화의 우월성이 아닌 여러 국가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의미로서, 한 문화는 그 문화가 처한 환경이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문화의 절대적 우월성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세계화 시대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공통 텍스트 교육은 각 문화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문화 상대주의 교육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사가 공통설화의 존재양상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스키마 형성, 자국의 문화와 비교학습 차원에서 세계에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설화나 아시아에 존재하는 공통 설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텍스트는 한국, 중국, 일본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견우직녀’ 텍스트인데, ‘견우직녀’는 ‘칠석’ 세시풍속의 유래에 해당한다. 다음 장에서는 ‘칠석’ 세시풍속 교육을 위한 세시풍속의 의미와 그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세시풍속의 개념과 교육의 필요성

한국어 교육에서 ‘칠석’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기전에 앞서서 세시풍속의 개념과 세시풍속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세시풍속의 개념

세시풍속은 한 해를 단위로 일정한 시기에 관습적, 주기적, 전승적, 반복적, 의례적으로 거행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행위를 말한다. 세시풍속은 일년 중 특정한 시기와 날에 행해지는 생활문화이다.

세시에서 세(歲)는 한 해를 뜻하고, 시(時)는 사계절을 뜻한다. 세시는 세사(歲事), 월령(月令), 시령(時令) 등으로 불렸는데, 여기에는 계절, 시간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은 4계절이 뚜렷하여 계절마다 독특한 풍속이 있는데, 세시풍속은 이러한 계절적인 관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시풍속은 오랜 시간 동안 생성, 수용, 전승, 소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선의 행동체계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정착된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즉 일상의 시간 흐름 속에서 세시풍속은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독특한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세시풍속은 철과 절기에 따라 행해진다. 집단적이면서 매년 반복되는 전통적이고 전승적인 행사이다. 대개 농경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농경의례의 성격을 내포한다. 고사, 점복, 금기, 무속, 부적 등의 민간 시낭을 비롯하여, 음식·복식·놀이·예술·농경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사실들이 복합된 종합성을 띤 문화 현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세시풍속에 해당하는 명절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민간신앙, 민속놀이, 예능, 의식주 등이 복합적으로 행해짐으로써 종합 문화적인 현상을 띤다.⁴⁾

한국·중국·일본은 독특한 한자문화권을 형성하여 오랫동안 상호 교류 및 수수(授受)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세시풍속에 대한 유래, 명칭, 날짜, 행사 등의 생활문화가 삼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⁵⁾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이나 중국도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생활의 진행이 계절마다의 리듬이 민감하게 작용하여 이 세나라는 세시풍속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다고 최인학(2008)에서도 이야기 하

4) 임경순(2009),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p.156~158

5) 신미경 외(2008), 「한·중·일 세시풍속과 세시음식에 대한 비교」,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Vol.18 No.3, 동아시아식생활학회 p.278

고 있다.⁶⁾ 다음에 제시하는 표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에 존재하는 세시풍 속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표를 통해서 각 나라의 세시 풍속에 명칭이나 기간이 어느 정도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봄	설 (양 1월 1일, 음 1월 1일) 정월대보름 (음 1월 15일) 삼진날(음 3월 3일)	春節, 元旦 (음 1월 1일) 元宵節, 上元, 灯節 (음 1월 15일) 龍抬頭 ⁷⁾ (음 2월 2일) 상사절 上巳節 (음 3월 3일)	설(양 1월 1일) 소정월 小正月 (음 1월 15일) 세즈분 節分 ⁸⁾ (양 2월 3일) 하나마츠리 雛祭 (양 3월 3일)
여름	한식(양 4월 3일) 사월초파일 (음 4월 8일) 단오(음 5월 5일) 유두(음 6월 15일)	浴佛節 (음 4월 8일) 단오절 重五 (음 5월 5일)	단고노셋구 端午の 節句 (양 5월 5일)
가을	칠석(음 7월 7일) 백종일 (음 7월 15일) 추석(음 8월 15일) 중양절(음 9월 9일) 시제(음 10월)	칠석 七夕 (음 7월 7일) 중원절 中元節 (음 7월 15일) 추석 中秋節 (음 8월 15일) 중양절 重陽節 (음 9월 9일) 하원절 下元節 (음 10월 15일)	다나바타 七夕 (양 7월 7일) 오본お盆 (양 7월 15일) 오츠키미 お月見 ⁹⁾ (양 9월 5일) 오히간 お彼岸 ¹⁰⁾ (양 9월 23일 경)
겨울	동지(양 12월 22일)	납팔절 獅王節	시치고산 七五三 ¹¹⁾

6) 최인학(2008), 「한·중·일 세시풍속의 비교연구를 위한 제언」, 『비교민속학』 제37집, 비교민속학회 p.28

	설달(음 12월 30일)	(음12월8일) 동지 冬至節 (양12월22일) 제석 除夕 (음12월 31일)	(양 11월15일) 시와스 師走 ¹² (양 12월 31일)
--	---------------	--	---

<표1>한·중·일 세시풍속¹³)

한국 중국 일본이 한자문화권에서 상호 교류를 맺어왔으며 비슷한 기후 속에서 동일한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세시풍속에 있어서 공통 점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

표면적으로 날짜가 일치한다는 것 이외에도 공통적인 기간에 한국 중국 일본에서 실제로 해당 풍습을 지내며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설, 정월대보름, 사월초파일, 단오, 추석, 동지 등에 특정 음식을 먹거나 특정 의례가 있듯이 중국에서는 원단, 춘절,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지키고 있었으며 월소절과 칠석도 생활 속에서 인식하고 풍속을 지내고 있었다.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월대보름에 해당하는 원소절(元宵節)에는 탕위엔(湯圓)을 먹고 등불구경을 하는 풍습이 행해지고 있으며, 칠월 칠석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선물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현대적인 풍습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시기가 일치한다거나 기간이 일치한다는 표면적 공통점 이외에도 각 나라별로 해당 풍속에 대해 익숙하게 여기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활에 밀접할 만큼 문화교육 차원에서 세시풍속의 필요성이 필요한데 다음 장에서는 세

- 7) 용이 머리를 드는 명절
- 8) 세츠분(節分)은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절을 나누다’라는 뜻에서, 각 계절이 시작하는 날(입춘, 입하, 입추, 입동)의 전날을 의미한다.
- 9) 보름달을 보는 달맞이 행사
- 10) 돌아가신 선조를 추모하는 날. 성묘를 가거나 불단 앞에 공양을 드린다.
- 11) 신사 등에서 어린이의 성장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며 행사를 하는 날
- 12) 스님을 모시고 독경을 하며 선조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사
- 13) 한·중·일 각 나라의 명칭과 시기는 유사하나 풍속은 다른 경우가 많다.

예로부터 양수(陽數)인 홀수가 겹치는 날은 길일로 여겨왔고, 한중일에 공통인 세시풍속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중양절(9월 9일)은 일본역사에서 강호(江戶, えど 에도시대) 시대 1603년부터 공식적인 행사로 막부정권에서 정해져서 명치유신(메이지유신, 1867) 이 있기 전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사랑받던 절기이나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시풍속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세시풍속 교육의 필요성

이번 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세시풍속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견우직녀 설화의 세시풍속으로서의 ‘칠석’ 풍속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세시풍속은 개념에서 이야기 했듯이 오랜 시간동안 생성, 수용, 전승, 소멸 등의 과정을 거치며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정착된 생활양식이다. 풍속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학습자는 세시풍속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세시풍속 문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한국에 대해 더욱 친근해진다면 문화적 이질감이 조금씩 해소되고 문화적 충격이 완화되면 언어학습을 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한국과 일본의 세시풍속, 한국과 중국의 세시풍속, 한국의 세시풍속을 연구한 논문들¹⁴⁾에서 각각 세시풍속의 요소를 어원 및 유래, 그 날에 행하는 풍속, 음식, 놀이 등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하고 있다.

세시풍속 안에는 음식문화, 놀이문화, 절기 풍속 문화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각각 교육의 의의를 가진다. 풍속에 대한 교육은 풍속에 대한 문화 지식을 습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풍속과 비교를 통해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의 같고 다른점을 통해 비교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본인 국가의 풍속에 대해 개념을 정립하게 되고 상대방 국가의 문화까지 이해하면서 풍속 차이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 교육은 각 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상대주의의식을

14) 이경아(2007), 「한일 양국 세시풍속의 기능에 관한 고찰」,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아(2006), 「한국과 일본의 세시풍속과 세시식 비교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진문(2003), 「일본의 세시풍속」 『아태연구』 Vol.2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pp.234-236

이명련(2006)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부산외대 석사학위논문

최배영 외(2005), 「양주시 초등학교 4학년 세시풍속교육프로그램 연구-여름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3),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pp.109~125

기를 수 있게 한다. 음식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식을 만들고 맛보면서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생생한 문화교육이 가능해진다. 놀이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전통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뿐 아니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놀이 참여를 통해 학습자간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학습자간의 결속력이 높아진다면 교실 내 분위기가 좋아지고 결국 학습자간 피드백을 통한 상호 협력적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시풍속에 포함된 놀이나 음식문화는 체험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교육적 자료가 됨을 알 수 있다.

그 중 한중일 공통 세시풍속이면서도 현대에 행하는 풍속이 각 나라마다 달라진 칠석 풍속 비교 학습을 함으로써 학습자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알 수 있게 된다. 학습자는 칠석 풍속에 들어있는 놀이문화나(각 지역의 축제), 음식문화(과일화채, 호박전)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를 더욱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칠석 세시풍속은 과거와 현재로 이어져 내려오는 자료이며, 자국문화에도 있고 타문화에도 존재하면서 의미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자료이므로 학습자의 모국 문화와 비교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칠석은 비록 현대에 예전과 같은 풍속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사라져가는 풍속으로 보이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옛 전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칠석의 전통을 재해석하여 커다란 문화 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에 견우직녀이야기는 명확히 인식되어 있으며 칠석이 어떤 풍습을 지니는 줄은 몰라도 우리나라의 풍속 중에 칠석이라는 날이 있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우랑직녀 설화가 수록되어 있어 일찍부터 교육하고 있으므로 중국인의 인식 속에서도 견우직녀 설화는 친숙한 설화이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이미 견우직녀와 칠석의 의미를 배우고 초등학생이 종이를 대나무에 걸어 소원을 비는 어린이들의 풍속인 만큼 일본에서도 이미 일찍부터 견우직녀 설화와 칠석 풍속에 익숙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견우직녀 설화를 통해 발생한 칠석이라는 풍속을 가르칠 때 외국인에게 있어서 친밀감을 주기 때문

에 교육의 효율성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 될 것이다. 세시풍속에 있어서 간과해야 할 풍속은 없으므로 다양한 세시풍속을 교육한다는 측면에서도 칠석 풍속 교육이 필요하다.

제 3 절 본고의 대상작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비슷한 내용을 가지는 설화와 세시풍속이 존재한다. 한국 중국 일본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설화의 종류와 세시풍속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본고에서 진행하고자하는 설화와 풍속의 선정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선 교사는 공통으로 존재하는 설화 텍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통 설화텍스트는 한국어 교육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하는 교재들에는 이미 여러 가지 설화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그 교재를 가지고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각 기관 정규과정 주 교재에 실린 한·중·일 공통 설화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견우직녀	신라대 4급(7과) 견우와 직녀
선녀와 나무꾼	경희대 고급1(8과) 선녀와 나무꾼 서강대 4A(8과) 선녀와 나무꾼 신라대 4급(6과) 선녀와 나무꾼
혹부리영감	성균관대 3급(19과) 혹부리영감 이화여대 3급(14과) 혹부리영감이야기(14과) 이화여대4급(10과) 도깨비 방망이
별주부전	선문대 중급1 토끼의 간 신라대 4급(18과) 토끼전, 5급(1과) 토끼전

<표2>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중일 공통 설화15)

‘견우직녀’는 일본에서 ‘타나바타(たなばた)’, 중국에서는 ‘우랑과 직녀(牛郎与織女)’로 텍스트가 존재한다. ‘선녀와 나무꾼’의 경우도 삼국 공통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에서는 ‘董永与七仙女’, 일본에는 ‘飛衣處女’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도깨비 이야기는 삼국 공통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혹부리 영감’도 일본에 존재하고 있다. ‘별주부전’은 일본의 설화인 ‘거북이 원숭이에게 속은 이야기’와 내용이 유사하다. 그밖에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의 ‘우렁각시’ 이야기는 중국의 ‘田螺姑娘’와 유사하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견우직녀 1편, 선녀와 나무꾼, 혹부리영감, 별주부전 각 3편이 수록되어 있다. 공통 설화는 교육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재의 공통설화 수록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한·중·일에는 공통 설화뿐만이 아니라 공통 세시풍속도 존재한다. 한·중·일에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세시풍속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한국	중국	일본
양1월1일, 음1월1일	설	春節, 元旦	설(お正月)
음1월15일	정월대보름	元宵節, 上元, 灯節	소정월 小正月
음 3월3일	삼짇날	상사절 上巳節	히나마츠리 雛祭 (양 3월3일)
음 5월5일	단오	단오절 重五	단고노셋구 端午の 節句 (양 5월5일)
음 7월7일	칠석	칠석 七夕	다나바타 七夕

15) <교재 목록>

- 성균어학원(2004), 『배우기 쉬운 한국어 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3), 『말이 트이는 한국어 3』,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중섭 외(2002), 『혼자 공부하는 한국어 중급 2』,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중섭 외(2002), 『한국어 중급 2』,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중섭 외(2003), 『한국어 고급 1』, 경희대학교 출판국
 이채연(2006), 『톡톡 튀는 한국어4』, 박이정(신라대 교재)
 이채연(2006), 『톡톡 튀는 한국어5』, 박이정(신라대 교재)
 최주열(2009), 『외국인을 위한 초급 한국어 4』, 한국문화사(선문대 교재)

(양 7월 7일)			
음 8월 15일	추석	中秋節	오본お盆 (양 7월 15일) 양 8월 15일(16))

<표3>한중일 공통 세시풍속

위와 같이 시기적으로 공통점을 보이는 세시풍속으로는 설, 정월대보름, 삼진날, 단오, 칠석, 추석이 있다.

세시풍속은 한국의 전통 문화 중 하나로 이 또한 한국어 교재에 수록되어 있으며 교육되고 있다. 다음은 서울에 있는 대학 중 정규과정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세시풍속 현황이다. 조사 목록에는 세시풍속, 세시음식, 세시 놀이를 포함하였다.

교재	세시풍속 수록 내용
경희대 『한국어』	초급Ⅱ(5과) 설날, 추석 중급 I (5과) 입춘, 하지, 동지, 춘분, 추분 한식, 설날, 단오, 추석, 삼복 고급 I (2과) 추석 (5과) 줄다리기
고려 대 『재미있는 한국어』	3권(15과) 설날, 성묘, 한복, 멱국, 세배, 윷놀이, 세뱃돈, 추석, 송편, 정월대보름, 오곡밥과 9가지나물, 부럼, 귀밝이술, 동지, 팔죽, 단오, 창포물에 머리감기, 그네뛰기, 씨름, 부채선물 3권 워크북(15과) 설날, 세배, 멱국, 차례, 성묘, 추석, 송편, 정월대보름, 오곡밥, 나물,

16) 전통적으로는 음력에 행해져 왔다. 일본에서는 메이지6년(1873)년 1월1일 양력채용 결정 이후 세시풍속이 양력의 날짜로 행해지고 있다. 일본의 오봉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음력7월 15일, 양력 7월 15일, 양력 8월15일에 행해진다. 현재 보도미디어에서는 다수가 8월 중순을 오봉이라 칭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한 달 늦어진 봉을 오봉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전국적인 흐름이라고 한다.

	부럼, 연날리기, 출다리기, 널뛰기, 달맞이, 더위풀기, 동지, 팔죽
서울대 『한국어』	2급(10과) 설날, 떡국 4급(17과) 설날 (18과) 윷놀이, 연날리기, 연싸움
서강대 『서강한국어』	3급A(4과) 설날, 세배, 윷놀이, 떡국, 차례
연세대 『한국어』	3급(28과) 설날, 절, 윷놀이, 세배, 한복, 사물놀이, 판소리 (30과) 추석, 설날 4급(37과) 설날, 세배, 설빔, 대보름, 부럼, 오곡밥, 달맞이, 단오, 쑥떡, 쌈름, 그네, 팔월 한가위, 송편, 추석
이화여대 『말이트이는 한국어』	2급(1과) 추석, 탈춤 5급(10과) 사물놀이
한국외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2급(27과) 윷놀이

<표4>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국 세시풍속 요소¹⁷⁾

한국에는 여러 세시풍속이 있는데 한국어 교재의 세시풍속을 살펴보면 추석과 설날, 단오, 동지, 정월대보름, 한식이 제시되어 있다. 세시 풍속의

17) 해당 교재 목록

김중섭 외(2001), 『한국어 초급 2』,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중섭 외(2002), 『한국어 중급 1』,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중섭 외(2003), 『한국어 고급 1』, 경희대학교 출판국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2), 『한국어 3』,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3), 『한국어 4』, 연세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저, 『재미있는 한국어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3), 『한국어2』,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6), 『한국어4』, 문진미디어
김성희 외(2009) 『서강한국어 3급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언어교육원(1999), 『말이트이는 한국어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언어교육원(2006), 『말이트이는 한국어5』,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2』,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례로 세배, 차례, 성묘, 달맞이, 창포풀에 머리감기, 설빔, 절이 수록되어 있다. 세시 음식으로는 떡국, 송편, 오곡밥, 부럼, 나물, 팥죽, 귀밝이술이 있었으며 전통 놀이로는 윷놀이, 씨름, 연날리기, 연싸움, 사물놀이, 그네타기, 줄다리기가 수록되어 있다.

설날과 추석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며 떡국, 송편, 윷놀이 등 세시 음식과 세시 놀이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명절이기는 하나 너무 두 가지 명절 위주로만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세시풍속 중 공통 세시풍속으로 설, 정월대보름, 단오, 칠석, 추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재에서는 정월대보름, 단오, 칠석의 제시나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칠석의 경우는 한 기관의 교재 외에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시풍속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면 민속의 문화이며 현재 민중의 생활방식이나 사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과해야 할 세시풍속은 없다. 교재 수록 현황에서 봤듯이 초급, 중급 단계에서 이미 추석과 설날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급에 가서는 학습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풍속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공통 설화와 공통 세시풍속의 존재 양상과 교재 수록 현황을 보았을 때 설화가 존재하고 풍속이 존재하는 것은 ‘견우직녀’ 설화와 ‘칠석’ 풍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견우직녀’는 설화 텍스트와 함께 풍속이 동아시아에 공통으로 존재함으로써 문화에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칠석’이라는 공통 세시풍속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교재 수록이 미미하고 따라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견우직녀’ 텍스트를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한국 중국 일본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설화일 뿐만 아니라, 세시풍속과 그 유래에 해당하는 설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가르치기에 가장 적절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견우직녀 설화 속에 들어있는 남녀 간의 사랑, 애정모티브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

공통 설화와 공통 세시풍속의 종류와 교재 수록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본고에서는 칠석의 유래담으로서의 한국, 중국, 일본 '견우직녀' 설화 텍스트를 비교하고 공통 세시풍속으로서의 '칠석' 세시풍속을 알아보고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자 한다.



제 3 장 ‘견우직녀’ 텍스트와 삼국 세시풍속 비교

제 1 절 ‘견우직녀’ 텍스트 비교

견우직녀 텍스트에는 여러 차이와 공통 양상이 있다. 물론 학습자가 차이점에 대해 세세히 알 필요가 없으며 교사가 차이점에 중점을 두어 교육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가 간 설화의 차이점과 공통점 양상을 교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본인 나라의 텍스트라고 주장하거나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중국 일본의 견우직녀 설화는 어떻게 공통점을 가지고 각 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한·중·일에 견우직녀 설화가 생겨난 유래를 알아보고 과거와 현재의 견우직녀 텍스트를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1. 삼국의 전승 경로

견우직녀 설화는 중국의 원 텍스트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기원전 7세기 이전 주나라의 노래를 엮은 『시경』에 견우직녀의 명칭이 쓰인 시가가 나온다. 문현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이 근접하는 천문학적 현상이 사랑이야기로 발전한 것은 1, 2세기 한나라 때이고 6세기에 전설이 완성되며 10세기 송나라 때부터 명절로 자리 잡는다.¹⁸⁾ 그러므로 『시경』에 나온 시가에 견우와 직녀라는 명칭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고, 중국의 『제해기(齊諧記)』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시기인 동시에 7세기 초 수나라 때 형초 지방의 연중세시기인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구체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국에서 견우직녀 설화가 언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최남선의 『조선상식』에 기록되어 있다. 周代에 견우성과 직녀성이 1년에 한 번씩 마주치게 보이는 움직임을 관찰하였는데, 여기에 차츰 탐기적(耽奇的)으로 변해 漢代에 이

18) 윤덕노의 ‘음식이야기’/동아일보 2011.8.5

르러서 天帝의 딸 직녀와 그 낭군인 견우가 1년에 한번 만난다는 설화가 만들어졌다고 하였다.¹⁹⁾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한나라로부터 고려에 전해졌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 공민왕이 이날 황후와 더불어 궁중에서 견우와 직녀성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궁중에서도 이날 잔치를 벌이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절일제의 과거를 베풀었다고 한다.

견우직녀설화는 예로부터 동양권에서 무수히 많은 문인들의 시문의 주제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찍이 고려 때 이인로(李仁老)의 <칠석우>, 이제현(李齊賢)의 <칠석>, 이곡(李穀)의 <칠석소작 七夕小酌>, 조선시대 정철(鄭澈)의 <차광한루운 次廣寒樓韻>, 김정희의 <칠석 칠률 七夕七律>, 여류 시인들의 것으로 이옥봉(李玉峯)의 <칠석가>, 삼의당(三宜堂)의 <칠월칠석>, 운초(雲楚)의 <강루칠석 江樓七夕>, 정일현(貞一軒)의 <칠석>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춘향전>을 비롯한 여러 고전소설, <규원가 閨怨歌>·<해조가 諧嘲歌>·<과부가>·<농가월령가>·<화조가>·<사미인곡>과 같은 가사, 또는 시조·민요들에도 견우직녀설화를 다루고 있다.²⁰⁾

일본에서는 7월7일을 다나바타라고 한다. 7세기 때 견당사(遣唐使)가 일본에 돌아와 전했다고 한다.²¹⁾ 중국의 칠월칠석 전설이 나라시대에 일본에 전래된 것으로, 8세기 말기 일본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만엽집(万葉集)』에 약 130수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야기인 다나바타 노래가 있다. 『만엽집』에 실려 있는 다나바타 노래 가운데 작자불명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통해 칠월칠석 전설이 일본화 됐음을 알 수 있다. 하늘의 강을 사이에 두고 애태우고 있는 견우가 가을바람 부는 7월7일 밤에 배를 장식하고 강 건너 직녀가 있는 곳에 가서 일 년에 한번 소원을 이룬다고 쓰여 있고 이것은 오늘날 전해지는 다나바타 전설과 그 내용이 같다.²²⁾ 직녀가 7월7일 밤, 일 년에 한번 만난다고 하는 중국의 전설과 다나바타메라고 불

19) 장정룡(1988),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서울: 집문당 p.196

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터넷 사이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6269>

21) 모로미야(2007), 『이야기 일본』, 일빛 p.199

22) 최영기(2007), 『세계문화체험』, 기문사, p.234

리는 베 짜는 처녀가 물가에 베틀을 놓고 신의 장림을 기다리며 하룻밤을 보내는 일본의 풍습이 결합되어 현재의 다나바타의 형태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들 각 나라의 견우직녀 설화 텍스트 비교를 위해 우선 한·중·일 현재 설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옛 견우직녀 시, 시가, 설화 등과 외국어 및 한국어 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현대의 견우직녀 텍스트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2. 삼국의 ‘견우직녀’ 텍스트 제시

설화 텍스트는 고대로부터 존재하였다. 그리고 각 국에 영향을 미치고 전파되어 왔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가장 최초의 견우직녀가 소재가 된 작품들을 보면, 초기에는 세 나라 모두 시가(詩歌)의 형태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흐른 후 설화의 형식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설화에는 그 안에 공통서사, 감정, 인식,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공통 서사를 찾기에 앞서서 고전 텍스트와 현재 외국어 교육 시 활용하고 있는 텍스트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고전 텍스트는 각 나라에 가장 오래된 텍스트를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현대 텍스트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외국어 교재에 수록된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텍스트 제시를 통해서 견우직녀 설화가 동아시아 공동 문명권의 영향 아래에서 세 나라가 일찍부터 공동으로 향유했던 설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전래되어 이제는 각 나라에 맞게 변형되어 자국의 설화로 수용되었고, 그와 더불어 칠석 풍속도 자국화 되어 행해질 수 있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 한국의 고전 텍스트와 현재 전해지는 텍스트

앞의 장에서 이야기한 전승경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견우직녀를 소재로 한 시가 전해져오고 있다. 설화의 이야기 형식으로 된 ‘견우직녀’는 아직 어디에 최초로 수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거의 최초로 견우직녀 소재를 사용한 고려시대 이 규보의 <七夕雨>라는 시와 현재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견우직녀’ 이야기를 제시하겠다.

(1) 七夕雨[李奎報] 23)

푸른 하늘 밖에 은하가 아득한데 / 銀河杳杳碧天外
하늘나라 신선들이 오늘 밤에 모인다 / 天上神仙今夕會
옹북 소리 끊어지매 밤 베틀이 비었고 / 龍梭聲斷夜機空
오작교가로 수레 빨리 가자고 재촉하네 / 烏鵲橋邊促飛蓋
서로 만나 이야기하세 이별하기 괴로워 / 相逢才說別離苦
내일 아침에 머물기 어려움을 도리어 걱정하네 / 還導明朝又難駐
두 줄기 옥 같은 눈물을 샘물처럼 뿌리니 / 雙行玉淚洒如泉
한바탕 가을 바람 일어 이내 비를 만든다 / 一陣金風吹作雨
광한전의 선녀는 비단 수건이 서늘한데 / 廣寒仙女練帨涼
쓸쓸한 계수 그림자 곁에 홀로 자나니 / 獨宿婆娑桂影傍
남의 신령스런 배필 하룻밤 즐거움을 시기하여 / 姦他靈匹一宵歡
두꺼비 집을 굳게 닫고 빛을 놓지 않는다 / 深閉蟾宮不放光
붉은 용이 내려오나 미끄러워 타기 어렵고 / 赤龍下濕滑難騎
푸른 새는 날개 젖어 날지 못하네 / 青鳥低霑凝不飛
하늘은 바야흐로 밝아와 새벽이 되려는데 / 天方向曉訖可霽
천손(직녀(織女))의 구름 비단옷이 물들까 두려워라 / 恐染天孫雲錦衣

(2) 견우와 직녀²⁴⁾

옛날 옛적,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직녀’라는 딸이 있었다. ‘직녀’는 베를 짜는 여자라는 뜻인데, 직녀는 이름만큼이나 베를 매우 잘 짜고, 모습도 무척 아름다웠다.

어느덧, 직녀가 시집 갈 나이가 되자, 임금님은 하늘나라를 살살이 뒤져 ‘견우(소를 돌보는 사람)’라는 청년을 찾아냈다. 임금님은 견우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였다. 그래서 직녀와 결혼을 시킨 뒤 대궐 안에서 살게 하였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아 행복하였다. 그런데 너무 노는 것에만 빠

23)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24) 이채연(2006),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4』, 박이정, pp.174~176

져, 견우는 소를 돌보지 않고, 직녀는 배를 짜지 않았다. 하루는 임금님이 견우와 직녀를 불러 무슨 일을 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견우와 직녀는 소를 타고 대궐을 돌아다니며 노느라, 임금님이 시킨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임금님은 크게 노하였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자신들이 할 일을 잊은 것도 모자라, 내 명령까지 어겨 가며 노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부터 견우는 동쪽 하늘에 가 있고, 직녀는 서쪽 하늘에 가 있어라.”

“저희들이 잘못하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직녀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였다.

“이미 늦었다. 그러나 일 년에 꼭 한번, 칠월칠석 날 밤이 되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마.”

이렇게 하여, 견우와 직녀는 이별하여 서로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참으로 더디게 갔다. 견우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애타게 직녀를 불러댔다.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에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아 냈다. 직녀도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느라 늘 소맷자락이 젖어 있었다. 푸른 풀밭 저만치에 견우가 서 있어 뛰어가보면, 견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견우가 향기로운 꽃바구니를 건네기에 두 손을 내밀어보면, 바람 한 점만이 손끝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드디어 칠월 칠석 날 밤이 되었다. 견우와 직녀는 한결음에 은하수까지 달려왔다. 하지만 강이 너무 넓어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견우와 직녀는 애가탔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다가 지쳐 주저앉아 서럽게 흐느꼈다. 두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비가 되어 땅 위에 떨어졌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려 여기저기에서 홍수가 났다. 집과 가축이 떠내려가고 산 속에 동물들도 동굴에 갇혀 지내야 하였다.

매해 칠월 칠석 날이 되면, 세상은 홍수가 났다. 동물들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모였다.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지 못하여 흘리는 눈물이 해마다 홍수를 나게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구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합니다.”

지혜로운 여우가 해결 방법을 말하였다.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에 있는 그 큰 강에 다리를 놓을 수 있

겠습니까?”

녀구리가 여우에게 물었다.

“글쎄요. 그게…….”

여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자 까치와 까마귀가 나서며 말하였다.

“그건 우리에게 맡겨 주세요. 우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으니까요.”

이듬해, 칠월 칠석 날 밤이 되었다.

수천, 수만 마리의 까치와 까마귀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그리고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꽁지깃을 서로 물어 은하수에 긴 다리를 놓았다. 서로의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며 흐느끼던 견우와 직녀는 너무 놀랍고도 기뻤다. 견우와 직녀는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였다. 견우와 직녀가 밟고 지나갈 때마다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털이 빠졌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았다.

드디어 견우와 직녀가 만났다.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일 년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 날 이후, 해마다 칠월 칠석 날이 되면, 세상의 모든 까치와 까마귀들이 은하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아 주었다. 그래서 칠월 칠석 날만 되면 쏟아 붓던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다만 견우와 직녀가 너무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 비가 되어 조금씩 내렸다.

사람들은 까치와 까마귀들이 놓은 다리를 ‘오작교’라고 불렀다. 그리고 칠월 칠석 날이 지나면, 까치와 까마귀들이 머리털이 빠지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밟고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2) 중국

중국에서 최초로 ‘견우직녀’를 다룬 『시경』 소아편의 詩歌 두 수와 현대의 중국어교재인 『중국4대 전설 다독 라이브러리』에 수록된 ‘우랑직녀’ 이야기이다. 시경에 비록 견우직녀가 등장하였지만 아직 견우직녀의 사랑 이야기로 발전하기 이전의 시가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남녀의 사랑이 나타나있지 않다. 다만 직녀라는 별이름과 견우라는 별이름이 백성의 비애와 유명무실한 관리를 비판하는데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다.

(1-1)²⁵⁾

或以其酒라도, / 어떤 이는 술을 주어도
不以其漿이며. / 음료로도 여기지 않고
鞶鞬佩璲를, / 치렁치렁 패옥을 들어뜨리고도
不以其長이로다. / 길다고 여기지 않네
維天有漢하니 / 하늘에 은하수 있어
監亦有光이며 / 살펴보니 빛이 나는데
跂彼織女가 / 모퉁이에 있는 직녀성은
終日七襄이로다. / 종일토록 일곱 번 배틀에 오르네.

(1-2)

雖則七襄이나, / 비록 일곱 번 배틀에 오르나
不稱報章이며. / 네게 줄 비단천 짜지 못하고
腕彼牽牛가, / 반짝이는 견우성도
不以服箱이로다. / 수레 상자 끌게 하지 못하네
東有啓明이오, / 동쪽에 샛별 반짝이고
西有長庚이며. / 서쪽에 장경성 반짝이며
有捄天畢이, / 굽은 천필성과
載施之行이로다. / 줄지어 벌여져 있네.

(2)우랑과 직녀(牛郎与織女) ²⁶⁾

옛날 옛날에 한 마을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의 집에는 소 한 마리만 있어서, 모두 그를 ‘우랑’이라고 불렀다.

그는 가족이 없어, 혼자 밥을 하고, 빨래를 했다.

하루는 그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옷도 깨끗이 빨아져 있고, 탁자 위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며칠 계속 이러했다.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다음날 아침 나가지 않고, 집 뒤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한 예쁜 아가씨가 들어오더니, 청소, 빨래를 하고 밥을 하기 시작했다.

25) 홍석육 역해(1999), 『詩經』, 고려원. pp.307~309

26) 중국어공부기술연구소(2009), 『중국4대전설 다독 라이브러리』, (주)시사중국어사, pp.109~110

우랑이 “당신은 왜 매일 와서 저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거죠?”라고 물었다.

아가씨는 수줍어하며 “저는 직녀라고 해요. 당신이 너무 고생스러운 걸 보고, 와서 돋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후, 직녀는 매일 우랑의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우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눴다.

후에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매우 행복했다. 몇 년 후, 그들은 1남 1녀의 자녀가 생겼다.

어느 날 직녀는 우랑에게 “나는 본래 하늘나라 국왕의 딸인데, 지금 부모님이 저더러 돌아오래요.”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울면서 날아갔다.

우랑은 직녀를 찾으려 가기로 마음먹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때 소가 말을 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나를 죽이고, 내 가죽을 입으면 날아갈 수 있어요.” 우랑은 소를 죽이고, 소가죽을 걸치자 날기 시작했다.

그는 날아가면서 직녀를 찾았다. 갑자기 직녀가 보였다.

직녀의 어머니는 그들을 못 만나게 하려고, 손가락으로 우랑과 직녀 사이에 은하를 만들었다. 여기서부터, 우랑과 직녀는 은하의 반대편에서 단지 서로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직녀의 어머니는 비록 우랑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딸을 너무 사랑해서 “너희 둘은 1년에 한 번씩 만나도록 해라.”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매년 음력 7월 7일에, 땅은 까치들이 다리를 만들어, 직녀와 우랑이 다리 위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3) 일본

8세기 말기 일본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만엽집』에는 총 4,536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칠석의 주제를 갖는 노래는 총 132수이다.²⁷⁾ 그 중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최초의 칠석가는 권8의 山上憶良 칠석가12수 (권8 1518~1529歌) 속에 전하는 다음의 칠석가이다.²⁸⁾ 최근

27) 『만엽집』의 칠석 관련 부분은 권8 1518~1529, 1544~1546 권9 1764~1765, 권10 1996~2093, 권15 3611, 3656~3658, 권17 3900, 권18 4125~4127, 권19 4163, 권20 4306~4313번으로 총 132수가 존재한다.

28) 이상준(2002), 「고대일본의 칠석가연구-만엽집 권십의 칠석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최초의 칠석가 12수 중 현재 만엽집 관련 도서나 논문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 두수뿐이다.

의 텍스트는 『일본어가 말랑말랑』이라는 일본어교재에 수록된 견우직녀이다.

(1)

天の川相向き立ちて我が戀ひし君來ますなり紐解き設けな 一云 川に向ひて (권 8-1518)

은하수를 서로 마주보고 서서 내 그리워하고 있었던 그분이 오신다 허리띠를 풀고 준비하자(또는, 은하수를 마주보고)

右, 養老 八年 七月七日 應令

ひさかたの天の川頼に舟浮けて今夜か君が我がり來まさむ (권8-1519)

은하수 여울에 배를 띄우고 오늘밤 정말로 그분은 내 곁으로 오실까

右, 神龜 元年 七月七日夜 左大臣宅

(2)七夕祭り²⁹⁾

하늘나라 황제의 딸인 직녀는 매일 베 짜는 데에만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다른 것에는 관심 없는 공주였습니다. 이를 가엾게 여긴 황제는 하늘 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소치는 목동인 견우에게 시집을 보냈고, 견우와 직녀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직녀는 전혀 베를 짜지 않았고, 견우도 소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화가 난 황제는 직녀를 다시 데리고 돌아왔지만, 이 두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일 년에 한 번, 칠월칠석 저녁에만 하늘의 강을 건너 둘이 만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비가 내려 강의 물이 불어나, 두 사람은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었고, 이 때 까치들이 날아와서 다리를 만들어주어 견우와 직녀는 그 다리를 건너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나라의 슬픈 이야기인 줄 아셨죠? 중국의 이야기랍니다.

두 번째 칠월 칠석 이야기는 일본으로 건너간 후, 일본화 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강을 사이에 두고 애태우고 있던 견우가 가을바람이 부는 7월 7일 밤에 배를 아름답게 장식해 강을 건너 직녀가 있는 곳에 가서 일 년에 한 번 소원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세 나라에 전해지는 최초의 텍스트와 현대의 텍스트를 살펴

29) 김희정 외(2002), 『일본어가 말랑말랑』, 시사일본어사, pp.72~73

보았다. 최초에는 삼국 공통으로 시가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내용이 포함된 설화로 발전된 것을 위의 존재 양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 삼국 공통설화로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삼국 공통 설화이지만 분명히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칠석의 유래답으로서, 공통 설화이지만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교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더욱 교육하기에 수월하다는 측면에 한국, 중국, 일본의 '견우직녀'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요를 살펴봄으로써 설화 안에 들어있는 문화요소와, 중국과 일본의 학습자가 설화에 대해 어떤 배경 지식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1) 한국

- ① 직녀는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이고, 견우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었다.
- ② 임금님이 견우와 직녀를 결혼시켰다.
- ③ 결혼 후 둘은 노는 것에만 빠져 일을 하지 않았다.
- ④ 임금님이 노하여 동쪽 서쪽 하늘로 각각 떨어져 지내게 하였다.
- ⑤ 임금님은 일 년에 한 번, 칠석날 밤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 ⑥ 칠월 칠석이 왔지만 강이 너무 넓어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 ⑦ 두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비가 되어 세상에 홍수가 났다.
- ⑧ 홍수가 나자 동물들이 회의를 했다.
- ⑨ 까치와 까마귀가 견우와 직녀를 돋기 위해 은하수에 긴 다리를 놓았다.
- ⑩ 견우와 직녀가 까치와 까마귀 머리를 밟고 건너 만났다.
- ⑪ 이제 홍수가 나지 않았다.
- ⑫ 음력 7월7일에 까치와 까마귀의 머리털에 빠지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밟고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2) 중국

- ① 직녀는 하늘나라 국왕의 딸이고, 우랑은 인간세계 사람이다.

- ② 직녀는 우랑이 집에 없을 때 몰래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돋는다.
- ③ 견우는 어찌된 일인지 알고 싶어 집 뒤에서 기다린다.
- ④ 직녀가 다시 우랑의 집에 나타난다.
- ⑤ 우랑이 직녀를 발견하고 왜 집안일을 돋는지 물으니 직녀는 우랑이 고생스러워 보여 돋는다고 한다.
- ⑥ 둘은 사랑하게 되어 결혼한다.
- ⑦ 직녀의 부모는 하늘나라에서 직녀를 다시 불러들인다.
- ⑧ 우랑은 직녀를 찾으려 가기로 결심한다.
- ⑨ 늙은 소가 나를 죽이고 가죽을 입으면 하늘나라에 날아갈 수 있다고 우랑에게 알려준다.
- ⑩ 우랑은 소의 가죽을 얻어 날아간다.
- ⑪ 직녀의 어머니는 그들을 못 만나게 하려고 두 사람 사이에 은하를 만들었다.
- ⑫ 직녀의 어머니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씩 만나도록 허락하였다.
- ⑬ 음력 7월 7일에 많은 까치들이 다리를 만들어 직녀와 우랑이 다리 위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3) 일본

- ① 직녀는 하늘나라 황제의 딸이고, 견우는 하늘 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목동이다.
- ② 황제는 견우와 직녀를 결혼시킨다.
- ③ 견우와 직녀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
- ④ 그 후 둘은 일을 계을리 한다.
- ⑤ 화가 난 황제는 직녀를 다시 데리고 돌아온다.
- ⑥ 두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일 년에 한 번 칠월칠석에만 만나는 것을 허락한다.
- ⑦ 견우와 직녀는 하늘의 강을 사이에 두고 애태우고 지낸다.
- ⑧ 7월7일 밤에 견우가 배를 아름답게 장식해 강을 건너 직녀가 있는 곳

에 가서 일 년에 한번 소원을 이룬다.

개요를 통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1) 두 사람의 신분

- 직녀는 하늘나라 임금의 딸이고, 견우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이다. (한국①, 일본①)
- 직녀는 하늘나라 국왕의 딸이고, 견우는 인간세계 사람이다. (중국①)

(2)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배경

- 직녀의 아버지가 견우를 찾아내어 직녀와 맺어준다. (한국②, 일본②)
- 직녀가 남몰래 우랑의 집안일을 돋다가 들켜서 만난다. (중국②③④⑤⑥)

(3) 견우와 직녀가 결혼하게 된다.- 공통

(4)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이유

- 결혼 후 각자의 일을 계을리 한다. 직녀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둘을 길라놓는다. (한국③④, 일본④⑤)
- 직녀는 본래 하늘나라 국왕의 딸인데 부모님이 불러서 돌아가야 한다며 날아가 버렸다. (중국⑦)

(5)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내게 된다.- 공통

- (6) 직녀의 부모가 일 년에 한번 만날 수 있게 허락함- 공통(한국⑤, 일본⑥, 중국⑫)

(7) 두 사람의 재회

- 인간세상의 홍수로 동물들이 회의,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놓아준다. (한국⑦⑧⑨⑩)
- 소가죽을 걸치고 찾으러 감,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놓아준다. (중국⑧⑨⑩⑬)
- 견우가 배를 아름답게 장식 해 강을 건너 직녀가 있는 곳에 간다. (일본⑧)

(8) 일 년에 한 번씩 재회한다.- 공통

결국 (3), (5), (8)번에 나타난 대로 한국, 중국, 일본의 견우직녀 설화에서 삼국의 공통점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함, 사랑하지만 떨어져 지내게 됨, 부모의 허락으로 일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게 됨, 두 사람이 일 년에 한 번 칠석날 재회한다는 기본 서사가 일치한다.

차이점은 견우와 직녀의 신분,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배경,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이유, 두 사람의 재회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기록된 문헌을 보면 중국에서 한국 일본으로 각각 전파되었다고 하나 이야기 내용은 중국이 가장 다르고 한국과 일본의 텍스트는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1)한일 비교(차이점)

두 사람의 재회

- 인간세상의 홍수로 동물들이 회의,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놓아준다.
(한국)
- 견우가 배를 아름답게 장식 해 강을 건너 직녀가 있는 곳에 간다. (일본)

한국과 일본의 설화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만 가장 마지막 부분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는 홍수가 나서 동물들이 회의한 끝에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놓아주기로 결정하지만 일본에서는 견우가 배를 타고 가서 만난다는 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2)한중 비교(차이점)

(1) 두 사람의 신분

- 직녀는 하늘나라 임금의 딸이고, 견우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이다. (한국)
- 직녀는 하늘나라 국왕의 딸이고, 견우는 인간세계 사람이다. (중국)

(2)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배경

- 직녀의 아버지가 견우를 찾아내어 직녀와 맺어준다. (한국)
- 직녀가 남몰래 우랑의 집안일을 돋다가 들켜서 만난다. (중국)

(3)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이유

- 결혼 후 각자의 일을 계을리 한다. 직녀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둘을 떨어뜨려놓는다. (한국)
- 직녀는 본래 하늘나라 국왕의 딸인데 부모님이 불러서 돌아가야 한다며 날아가 버렸다. (중국)

(4) 두 사람의 재회

- 인간세상의 홍수로 동물들이 회의,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놓아준다. (한국)
- 소가죽을 걸치고 찾으러 감,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놓아준다. (중국)

한국과 중국의 설화는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이는데 우선 견우의 신분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의 설화에서는 견우가 하늘나라 소속이지만 중국의 설화에서는 인간세계 사람이다. 또 다른 점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된 배경인데 직녀의 아버지 소개와 직녀가 먼저 찾아오게 된 상황이 다르다.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이유도 한국 설화의 경우 일을 계을리 해서 헤어지지만 중국의 경우 원래 하늘나라 사람이던 직녀가 부모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가버리는 점이 다르다. 중국 설화의 경우 소가 견우를 도와준다는 점이 특이한 점인데, 소가 죽은 후 가죽을 제공하고 견우가 소의 가죽을 걸치고 하늘로 따라가게 된다.

설화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나라에 전파되면서 그 나라에 맞게 변형되어 왔다. 그래서 차이점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설화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의 설화는 전반부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후반부는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삼국의 견우직녀 설화 텍스트 비교를 통해서 견우와 직녀가 사랑했다가 헤어지게 되고 일 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된다는 기본적인 서사가 일치하지

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공통점이 존재함으로 해서 설화 교육을 할 때 설화 등장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게 되고, 줄거리 상의 선지식을 가지게 된다. 선지식 덕분에 설화 텍스트를 통해 줄거리 파악이 용이해지므로 그에 따른 언어 학습에도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설화 내용을 통해서 문화요소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일본 전설에는 견우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이것은 일본 설화의 차이점에서 문화적 요소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섬나라로 강과 바다가 많은 나라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³⁰⁾ 설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적인 문화적 요소로는 칠월 칠석 기간에 비가 자주 오는 환경적인 문화이며, 문화적인 요소를 재해석해보면 젊은 남자와 여자가 일을 계을리 하고 놀기만 하면 별을 받는다는 교훈까지도 다다를 수 있게 된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견우와 직녀의 애듯한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연의 귀중함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공통설화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스키마를 형성시키고, 문화 요소가 포함되어 교육 시 많은 이점이 있는 견우직녀 설화가 한국어 교재에 텍스트로 선정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재에 수록되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제 2 절 ‘견우직녀’ 설화의 세시풍속으로서의 한중일 ‘칠석’ 비교

견우직녀 설화는 유래에 해당하고 칠석은 그에 따른 세시풍속으로 나타난다. 세시풍속 비교의 목적은 과거와 현재 풍속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현대 칠석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학습자가 한중일 공통 텍스트인 견우직녀 설화 교육을 통해 선행 지식을 가진 채로 칠석 세시풍속을 배운다면 한국의 풍속을 체험, 전통 문화의 지식을 넓히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설화의 내용상의 공통점은 세시 풍속

30) 김희정 외(2002), 『일본어가 말랑말랑』, 시사일본어사, p.72

을 교육하는데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는 현대의 칠석 체험을 통해 학습자 나라의 풍속과 이름은 같지만 그 풍속을 보내는 방법은 다른 것을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은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깨달음과 동시에 한국문화의 이해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칠석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한번 만나는 날로만 떠올리지만, 옛날에는 한·중·일 공통의 명절이었다. 설화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듯이 세시풍속에도 세 나라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과거와 현재의 풍습을 살펴보겠다.

1. 과거의 세시풍속

중국과 일본의 일치하는 명절의 경우 태음력의 역법에 따라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과 중국에 전파되었다. 이 때문에 세시풍속의 양상이 비슷한 경우도 보이나, 각 국에 전파되면서 고유의 문화에 맞게 변형되어 정착한 모습도 보이게 된다.

칠석은 원래 중국의 풍속이자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고려 이래로 한국의 중요한 세시로 자리잡아왔다. 과거에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칠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시풍속에는 그 시기에 행하는 풍속과 의례, 세시 놀이, 세시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풍속과 의례, 놀이, 음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풍속 및 의례

중국 ³¹⁾	1. 결교 (穿針乞巧) 『荊楚歲時記』에 수록. 부녀자가 일곱 개 바늘에 실을 끼어 직녀성에게 지혜와 재간을 달라고 비는 풍속. 소녀나 젊은 부인들이 모여서 둘러앉아 직녀성에 제사지내고, 소원을 빌었다. 소녀들은 예뻐지기를 빌거나 미래 신랑에 대해 빌었고 부녀자들은 자식이 생기길 빌었다.
	2. 소의 생일축하 (爲牛慶生)

	<p>어린아이들이 칠석날에 야생화를 꺾어 소뿔 위에 건 뒤 소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다. 견우직녀 설화에서 유래한다. 늙은 소가 견우에게 자신의 가죽을 벗겨내도록 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강을 건너 직녀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소의 희생정신을 기념하려고 이런 풍습을 만들었다고 한다.</p> <p>3. 쇄서쇄의 (晒書晒衣)</p> <p>책과 옷을 햇볕에 말리는 풍습</p> <p>4. 괴성에게 제사 (拜魁星)</p> <p>민간에 7월 7일은 괴성(중국의 신화에서 문장의 흥망성쇠를 주재(主宰)하는 신)의 생일이라 하여 제사를 지냈다</p> <p>5. 머리감기(婦女洗發)</p> <p>호남, 절강성의 특별한 풍속으로 《攸縣志》에 기록되었다고 한다.</p> <p>6. 채색실을 머리에 장식</p> <p>『수신기』에 의하면 7월7일이 되면 한나라 궁중의 여성들이 물가에 가서 우전의 악곡을 노래하고, 서로 채색 실을 머리에 매어 장식하였는데 이를 상련수(相連綬)라고 부른다. 이는 채색 실을 통해 여성들이 기자하고 남성에게 사랑 얻기를 기원하는 풍속이다.</p>
한국 ³²⁾	<p>1. 결교(乞巧)</p> <p>『세시기』에 칠석날 어린 여자아이들은 바느질 솜씨를 다투고 별에 기원하는 놀이를 하는데 이를 결교라고 하였다.</p> <p>2. 과거제 실시</p> <p>『세시기』에 칠석에는 나라에서 과거를 시행하여 선비를 뽑았으며, 이를 칠석제(七夕製) 또는 오제(梧製)라고 하였다.</p> <p>3. 파접례(罷接禮)</p> <p>『명절풍속』에 4월 초부터 모여서 시 짓기 연습을 하니 이를 개접(開接)이라 하고, 7월이 되면 모임을 끝내니 이를 파접(罷接)이라고 하며, 그때마다 술과 고기, 국수와 떡 등을 마련</p>

	<p>하여 서로 위로하니 이를 파첩례라고 하였다.</p> <p>4. 폭서폭의(曝書曝衣)</p> <p>『동국세시기』에 옷과 책을 햇볕에 말리는 풍속이 기록되어 있다.</p> <p>5. 칠석제 또는 칠성제(七夕祭, 七星祭)</p> <p>부인들이 음식을 차려 집안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라며 명과 복을 빌었다.</p> <p>6. 시짓기</p> <p>『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옛날 서당에서는 학동들에게 견우 직녀를 시제(詩題)로 시를 짓게 하였다고 한다.</p> <p>7. 바늘에 실 끼기</p> <p>여자들이 달빛 아래에서 바늘에 실을 끼어 두었다가 옷자락에 몰래 끼매면 소원을 성취한다고 믿는 풍속</p> <p>8. 진세놀이</p> <p>전남 여수, 칠석날을 ‘진세 먹는 날’이라고 하여 3세나 5세가 된 아이가 있는 집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해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노는 날이다.</p>
일본 ³³⁾	<p>1. 결교전(乞巧奠)</p> <p>여성의 수예기술의 숙달만을 기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와 장수, 자손의 번영까지도 기원했다.</p> <p>2.작문회</p> <p>칠석 저녁에 견우성과 직녀성 두 성좌의 회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인들이 지은 노래가 만엽집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p> <p>3. 물과 관련된 풍습</p> <p>여자가 머리를 감거나 아이들이 미역을 감고 집에서 기르던 소나 말도 강가에 헤엄치게 했다고 한다.</p> <p>4. 수신과 칠석신에게 제사</p> <p>풍작기원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였다.</p>

과거의 한중일의 칠석풍속은 대부분 중국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풍속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바느질 솜씨가 늘기를 바라는 풍습, 햇볕에 옷과 책을 말리는 풍습, 직녀성에 소원을 비는 풍습이다. 중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존재하는 풍습도 있었는데 머리를 감는 풍습이다.

2)놀이

한국 ³⁴⁾	솔불놀이: 전북 정읍, 두 동네가 달집짓기를 다투는 성장의례 관련 놀이 부사칠석놀이: 대전광역시 중구, 길놀이와 칠성제, 견우직녀 상봉놀이와 장치기놀이를 한다.
중국	손재주를 겨루는 것: 일곱 구멍의 바늘에 색실을 꿰는데 빨리 꿰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일본 ³⁵⁾	스모(相撲) 문화상에서 일본서기에 스이닌(垂仁)천황 7년7월7일을 최초 로 그 후에도 나라시대에 걸쳐 7월7일에 행해지고 있다.

풍속 의례와는 달리 놀이에서는 별다른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행하는 놀이가 다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역별로 각각 특정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은 한국 문화의 특화된 점으로 보고 교육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초등학생 대상이기는 하나 최배영 외(2008)에서는 솔불놀이를 통해 세시풍속을 교육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³⁶⁾ 한국의 부사칠석놀이는 전국에서 행해지

31) 1-5번, 국립민속박물관(2006), 중국대세시기. 1,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p.68~70
6번, 국립민속박물관(2004), 『한국세시풍속사전(秋)』,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55

32) 1-3번 최배영 외(2005)에서 정리한 것을 참조
4-7번 국립민속박물관(2004) 한국세시풍속사전(秋) 참고, pp.49~55

33) 김지영(2009), 「연중행사 칠석-기원과 행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34) 국립민속박물관(2004), 『한국세시풍속사전(秋)』,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61

35) 김지영(2009), 「연중행사 칠석-기원과 행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36)최배영 외(2005), 「양주시 초등학교 4학년 세시풍속교육프로그램 연구-여름 세시풍속
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는 놀이문화는 아니지만 옛 문화를 이어가고자하는 지역 사람들의 노력으로 아직도 매년 해당 지역에서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3) 음식

한국 ³⁷⁾	<p>밀국수, 밀전병, 호박도래전 등 시절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호박전</p> <p>이 시기에는 호박이 잘 열고, 오이와 참외가 많이 나올 때이므로 민간에서는 호박부침을 만들어 칠성님께 뵙었다. 과일화채 (복숭화 화채, 수박화채)</p>
중국 ³⁸⁾	<p>걸교과자(巧果 또는 小簍, 面果)</p> <p>걸교음식으로 乞巧果子가 있고 주재료는 기름 설탕 밀가루 꿀이다. 틀에 넣어 동물모양, 바구니 모양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다.</p>
일본	<p>소면먹기</p> <p>우다(宇多)천황2년에 그때까지 민간에서 행해진 7월7일의 소면을 궁중에 도입했다고 한다. 소면을 먹은 것은 이른바 수확제행사, 즉 늦여름과 초가을의 시기에 수확에 대한 감사제로써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p> <p>사쿠베이</p> <p>나라시대 때 궁중 과자로 사쿠베이라는 것을 올렸다. 사쿠베이는 밀가루에 쌀가루와 소금을 첨가하여 반죽한 다음 이것을 칼로 가늘게 잘라 대나무에 걸쳐 말린 것을 말한다.</p>

음식의 경우 각 나라에서 먹는 것이 달랐지만, 밀을 재료로 해서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풍속과 의례를 삼국이 비슷하나 놀이와 음식은 나라마다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어 교육에서 옛 칠석 풍습으로 세시 음식을 체험하게 한다면 밀국수, 호박전, 과일화채 만드는 법을 배운 후 직접 만들어보거나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

37) 국립민속박물관(2004), 『한국세시풍속사전(秋)』,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pp.59~61

38) 출처 바이두 백과(<http://baike.baidu.com/>)

보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풍습을 보았을 때 의례만 비슷할 뿐 놀이와 음식은 각 나라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과거의 풍속과 현재의 풍속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현재의 세시풍속

현재의 세시풍속은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풍속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불교행사 불교 사찰에서 칠석 불공을 드린다.칠석행사 서울, 대전, 문경 등 각지에서 칠석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칠석제, 칠석 다례 등 행사를 하고 있다.
중국	중국에서는 칭런지에(정인절;情人節)이라고 하며, 남성이 여성에게 장미꽃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같이 식사도 하고 낭만의 밤을 보낸다.
일본	<ol style="list-style-type: none">타나바타마쓰리(七夕祭り) 타나바타 행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어 축제분위기속에 열린다.단자쿠(短冊) 어린이들의 행사: 유치원 및 소학교에서 대나무 가지에다가 소원을 붙인 장식물을 나누어주면 아이들이 집으로 가지고 와서 처마 밑에 걸어둔다.

한중일 모두 바느질 솜씨를 위해 빌거나 제사를 지내는 옛 풍속과 의미가 희석되었고 각 국의 독자적인 문화가 생성되었다.

한국은 불교 행사를 자리 잡거나 칠석제를 재현하는 행사와 다례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규모 공연으로 정착되었고 그 공연에서는 전통의 칠석의 풍속을 이으려는 노력들이 보인다.

중국도 옛날에 바느질 솜씨를 빌며 제사를 지내던 것에서 견우직녀 유래에 더 치중한 날로 변해 중국의 경우 연인의 날로 장착되었고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선물하고 식사를 하는 날, 결혼하기에 좋은 날 등으로 변화되었다.

일본의 칠석 축제인 ‘타나바타마츠리(七夕祭)’는 일본의 3대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에 센다이(仙台)와 히라즈카(平塚) 지방에서 대표적으로 축제를 행하고 있으며 칠석 기간동안 3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축제를 즐긴다. 물론 동경 등 다른지방에서도 전국적으로 행해진다. 일본의 경우도 옛 풍습은 많이 사라지고 상인들의 주도로 새로운 문화로 발전되었다. 다나바타마츠리는 축제분위기에서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즐기고 있다. 일본의 경우 특이하게 음력과 양력을 모두 사용³⁹⁾하여 두 번에 걸쳐 행사를 한다. 칠석 뒤의 명절인 오본(お盆)의 준비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어린이들의 소원을 비는 날이 되었다.

이처럼 삼국의 현재 칠석 풍속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칠석은 현재 중국 일본과 다른 의미로 행해지고 있으며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로 학습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칠석 문화에서 교육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각 지역 칠석 행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행사 명칭	주최 및 주관	개최장소	행사 기간	2011년 기준 개최 횟수
서울	칠월 칠석-연인의 날 및 문화 행사	주최-한국여성향 토문화연구원,한 민족 칠석 제 보존 회 주관-소서노어라	청계광장 ⁴⁰⁾	3일	8회

39) 한국은 칠석을 음력으로 보내는 반면, 일본은 음력, 양력 다 지내는데 양력에 더 비중이 있다. 이것은 일본이 음력을 썼다가 메이지 유신 때 서양을 따라한다고 음력을 다 없어버렸기 때문이다.

		하 기념사업회			
	칠석 문화제	주최-한국불교전 통문화원(칠석문화보존회) 주관-(사)한국차 인연합회, 석정원 차회	남산골 한 옥마을 ⁴¹⁾	1일	7회
경기도 (용인)	2011년 칠월칠 석 행사 견우, 직녀 만나러 한국민속촌으 로 갑니다!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	2일	매년 하는 것은 아님
대전	견우직녀 축제	주최-(주)대전문 화재단 주관-대전MBC, 견우직녀축제추 진위원회	엑스포 남 문 만남의 광장 일원 및 견우직 녀 다리(엑 스포다리)	2일	6회
문경	칠석차(七夕茶) 문화제	주최-(사)한국차 인연합회 문경다 례원 후원- 문경시	문경 새재 야외공연장	1일	15회
당진	해와 달의 만 남	주최-당진군 주관-석문면개발 위원회	왜목마을	2일	2011년 시작
울산	칠석한마당	주최-울산문화사 랑회 후원-울산광역시	울산문화예 술회관	1일	2010년 9회 까 지 확 인됨
	2009년 칠석맞	주관-울산시 중	울산종합운	1일	매년

	이 한마당축제	구문화원	동장 청소 년광장		하 는 것 은 아님
부여	백제 칠석 차 문화제	국립부여박물관	부여 궁남 지	1일	9회
여수	진세 민속놀이	주관-진 세민속보 존회	관기 상관 마을 앞 광 장	1일	2010년 10회까 지 확 인됨
경주	2011 견우직녀 축제	주최·주관- 경주 문화연구원 후원- 경상북도, 경주시, (주)GBN 경북방송	첨성대 앞 동부사적지 일원	2일	2011년 시작
순천	2010 칠월 칠석 사랑 페스티벌	주최- 순천시, 순 천 만자연 생태위 원회 후원- 전라남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순천만자 연생태공원	2일	매년 하 는 것 은 아님
과천	칠월칠석 연인 의 날 행사	(사)한국화원협회	과천시민회 관	2일	2005년 부 터 시작

<표5> 현대 칠석 문화 축제⁴²⁾

40) 장소는 해마다 일정치 않다.

2003-2007 한강 선유도 공원

2008 남산백범광장

2009 한강 선유도공원

2010-2011 청계광장

41)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리다가 2008년부터 한옥마을로 장소를 옮겨 칠석제의 전통
을 이어오고 있다.

42) 축제 참여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한국민속촌 <http://www.koreanfolk.co.kr>

대전 견우직녀 축제

http://tjmbc.co.kr/cnt/event/menuUrl_sub.php?mid=190&m_sub=event_03_3.html

현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칠석의 행사는 이처럼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찾은 것 이외에도 더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행사 기간이 긴 서울 청계광장 '칠월칠석-연인의 날 및 문화행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제8회 행사가 진행되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청계광장에서 행함으로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행사와 3일간의 긴 기간 동안 일반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총3일간 진행하지만 똑같은 행사를 3일간 반복하는 형식이다. 풍물놀이, 칠석학술세미나, 연인들을 위한 행사, 견우직녀 인형극, 여성사제와 직녀제, 칠석굿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칠석을 현대에 잘 되살리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행사는 대전의 '견우직녀 축제'와 문경의 '칠석차문화제'라고 할 수 있다. 대전 견우직녀 축제는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의 견우직녀 칠월칠석을 전통과 문화, 예술행사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축제이며 양일간 진행하는 행사이다. 약 3만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다고 한다. 중요 행사로 부사칠석놀이, 강한 견우&건강한 직녀 게임, 견우직녀 주제공연, 프러포즈 이벤트, 인기가수 미니콘서트, 불꽃놀이, 견우직녀 트롯가요제가 진행되고, 전시/체험, 부대행사로 견우의 한우마을에서는 명품 한우 시식 및 전시, 직녀의 한산모시마을에서는 배 짜기 체험 및 멱 만들기, 칠석날 특화음식 체험 및 연인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이벤트 부스운영,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기구를 마련하였다. 대전 견우직녀 축제에서는 샘에 치성을 드리고 놀이패가 행군을 하는 부사칠석놀이가 불만하고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경 칠석차(七夕茶)문화제 <http://www.chilseok.com/>

당진 해와 달의 만남 http://www.dangjin.go.kr/html/tour/enjoy/enjoy_07_08_t01.html

여수 진세민속놀이(남해안신문 2010년 08월 16일자)

<http://www.n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55>

울산 칠석맞이 한마당축제

http://www.munhwad21.org/bbs/view.php?db=gallery2&id=115&s_no=107&page=6&key=&index=

부여 백제 차문화제 (국립 부여박물관)

http://buyeo.museum.go.kr/culture/home/edu_02_03/main.do?cntNo=15&kind=etc

경주 견우직녀축제(경북방송)

<http://blog.naver.com/gbn0456?Redirect=Log&logNo=50117375895>

문경 칠석차문화제에서는 칠석 기념 학술세미나를 가지며, 문경 칠석제를 지낸다.⁴³⁾ 꿈이룸 칠석 등(燈) 달기, 두이차회(차나눔 자리), 칠석 복 떡 나눔, 칠석장수국수시식 행사가 있으며 예술 행사를 추가하여 색소폰 연주 등 여러 가지 무대공연을 한다. 칠석 축시(祝詩) 전시와 칠석사진공모전 전시도 있다. 차문화제인 만큼 차를 우려서 방문객들에게 선사하는 차나눔 자리가 가장 특색 있다고 생각된다.

화원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인의 날 행사는 상업적인 목적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 화원협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해 2005년부터 칠월칠석을 연인의 날로 제정하였다. 우리 고유 명절인 칠월칠석에 감사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자는 취지이다. 이처럼 상업 단체에서도 꽃 소비를 촉진하고 연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해 칠월칠석을 국민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현대의 칠석 행사 표를 보면, 지자체 발달과 상업적인 목적으로 부활되는 것까지 합하여 상당히 많이 부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를 통해 현대 칠석 풍속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데, 지역, 개최횟수, 주최 측의 양상을 살펴 현대 칠석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다양한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서울, 경기도, 전라도(여수), 충청도(당진, 부여), 경상도(문경, 경주) 뿐만 아니라 대전, 울산광역시에서도 칠석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분포 다양한 것은 통해 칠석 행사가 특정 지역만의 문화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해지며 한 나라의 현대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개최횟수: 10년 내외의 것이다. 십년 이내에 이 정도라면 엄청난 폭발적인 양산이며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 십년 내에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지역별 행사가 점점 더 활성화될 가능성을 봤을 때 칠석 풍속 또한 얼마나 더 확산될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43) 문경 칠석제는 신위를 설치하는 의식을 '길을 놓다:고풀이', '별을 부르다:초성제', '별이 내리다: 견우직녀하강'의 순서로 진행한다.

③주최측: 지방자치단체나, 방송국, 민간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갈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며 전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행사를 개발 할 텐데 그럴 때 고유한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세시풍속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대전과 경주는 방송국 주관과 후원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국이라는 미디어 매체야말로 대중과 함께 간다. 방송을 통해 더 넓은 지역으로 까지 문화가 확대 보급된다. 마찬가지로 방송국을 통해서도 또 다른 세시풍속의 개발될 가능성은 많다.

단체는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한민족 칠석제보존회, 한국민속촌, 대전문화재단, 문경 다례원, 울산문화사랑회, 울산시중구문화원, 진세민족보존회 등이 있는데 이들 단체의 경향을 보면 민족의 풍속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칠석 문화가 계속 이어지며 발전될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칠석 자체도 활발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풍속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가 이렇다면 이건 한국만의 특색일까? 본고에서 살펴본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각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재 중국의 칠석 풍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칠석은 젊은이들 주도적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은 자유로운 남녀 간의 연애가 허용되는 환경으로 변했다. 칠석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면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기세라면 이 풍속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연애나 애정관계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표출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 칠석은 분명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소원을 비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의 문화와 상업적인 목적이 결합하여 칠석의 문화가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라즈카의 칠석 축제는 전쟁 후 상업 진흥책으로서 시작한 것으로 활발한 상업력이 뒷받침한 일본에서 가장 호화로운 축제이다. 축제는 상가를 중심으로 시내 전역에서 행해진다. 일본의 칠석 행사는 이미 상업적으로 생성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의 특성상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아도 축제가 계속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본은 오랜 전통을 자국의 관광 축제로 승화시켜 내국인과 외국인의 소비를 촉진하며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다.

한국은 이미 본 것과 같이 지자체와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단체들의 노력이 있으며, 또한 칠석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꽃을 주고받는 문화로 재탄생시키려는 화원협회의 상업적인 목적까지 더해져 최근에 들어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삼국 공통으로 칠석이라는 풍속은 과거의 풍속이 아니라 현대의 풍속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고 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칠석이라는 세시풍속에 한한 것일까? 앞에서 살펴본 삼국의 예는 사실 오늘날 현대인 또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연애 풍속도, 상업적인 이윤을 탄 풍속도, 지자체의 활성화 이런 각각의 요소는 다른 세시풍속에도 적용되어 현대적인 행사를 창출할 수 있다. 전통적인 세시풍속은 현대의 요구와 맞아떨어질 때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의 칠석 행사는 칠석 제사, 칠석 궂뿐만 아니라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본떠 연인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칠석 음식 나눔과 특화 상품 전시. 그밖에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각종 행사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칠석은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이 아니라 지자체 발달에 따라 적극 부활되는 세시풍속이다.

제 4 장 현대 ‘칠석’ 풍속의 교육적 효과

제 1 절 ‘칠석’ 문화교육의 학습대상자

칠석이라는 세시풍속은 견우와 직녀라는 설화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설화 텍스트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세시풍속과 현대의 문화로 확장되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설화라는 언어 텍스트가 하나 있고 그 언어 텍스트에 현대화된 풍속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칠석이라는 풍속은 간파해서는 안 될 풍속이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칠석 풍속을 교육한다면, 언어 텍스트를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풍속을 통해서 현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으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우선 학습자의 출신 국가를 봤을 때, 외국인 학습자 전체가 칠석 문화 교육의 학습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 학습자 출신국에 따라 효과가 다를 것이다. 본고는 한·중·일 삼국을 비교하였으므로 우선적으로 교육적 효과 탐색의 주 대상학습자를 중·일 학습자로 한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국가이기 때문에 상호 교류가 밀접하여 공통으로 설화와 풍속이 존재한다. 학습자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자문화와 비교하며 문화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지역, 특히 서양학습자의 경우, 칠석 관련 학습을 통해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로 시각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서양권과는 다른 한·중·일 삼국의 문화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학습자 환경은 국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의 경우 체험학습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문화를 익히고 그에 따른 과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교재나 그에 따른 사진, 미디어 자료를 통해 간접적인 칠석 문화교육이 가능하다.

학습자 수준은 설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초급단계에서 학습하게 되는 설날이나 추석 외에 더욱 다양한 세

시풍속을 수용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2 절 문화현장의 체험과 교실 내 활동의 학습효과

앞에서 현대 칠석 풍속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의 경우 젊은이들의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었고, 일본의 경우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칠석 풍속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발전되었음을 보았다. 한국의 경우 지자체의 형성과 함께 칠석 행사가 지역문화로 부활,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칠석 풍속을 부활하는 세시풍속이며, 칠석 풍 속이 앞으로도 늘어날 확률이 높다. 칠석 풍속의 경우를 보았을 때 다른 풍속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풍속은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현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일본은 이미 교육적으로 세시풍속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세시풍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칠석 세시풍속에 대한 체험 전, 체험 단계, 체험 후 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체험 전 학습 활동과 효과

사전조사, 정보제공→문화체험→과제제시: 사진과 함께 설명글을 써서 응모→시장→전시하거나 문화체험 자료집 작성. 소감 인터뷰.⁴⁴⁾

교사가 학습자에게 문화 체험에 대한 선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학습자가 문화 체험 전 교실 내 활동으로 얻어 기능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말하기와 듣기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44) 이은숙(2010)의 문화체험교육 방안을 수용하여 제시하였음.

- 1) 각 나라의 견우직녀 이야기 말해보기
- 2) 각 나라의 칠석 풍속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 3) 칠석에 대한 학생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거나 글로 써보기
- 4) 인터넷 등에서 각 지역의 칠석 풍속 찾아와서 발표하기

2. 문화현장의 체험 학습효과

사전조사, 정보제공→문화체험→과제제시: 사진과 함께 설명글을 써서 응모→시상→전시하거나 문화체험 자료집 작성. 소감 인터뷰.

한국어 문화교육은 기본적으로 공익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한다.⁴⁵⁾ 현대 칠석에 행해지는 서울 '칠월칠석-연인의 날 및 문화행사'와 특색 있는 칠석 풍습을 내세워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대전의 '견우직녀 축제'와 문경 '칠석차문화제' 등 위에 나타난 현대 행사들에서 의례, 놀이, 음식 세시풍속 문화를 찾아 관람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적 요소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체험 후 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관람	의례	직녀제, 칠석굿, 부사칠석놀이, 진세놀이
체험	놀이	풍물놀이, 배 짜기 체험, 꿈이룸 칠석 등 달기
	음식	차나눔, 과일화채나 호박전 만들어 먹기

칠석제와 칠석굿, 부사칠석놀이, 진세놀이는 예전부터 행해진 풍속을 지켜오려는 의례인데 매년 각 지방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가까운 지역에 참석하여 관람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람을 통해 한국 과거에서부터 이어지는 현재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체험학습의 배 짜기 체험, 소원을 비는 등 달기는 견우직녀 설화나 현대적 요소와 결합된 문화인데, 이것 또한 해당 행사지에 방문하여 체험이 가능하다. 음식 체험의 경우 차문화제에 방문한 경우 그곳에서 가능하며, 세시음식인 과일화채나 호

45) 이상혁(2009), 「한국학과 훈민정음」 『우리어문연구 35집』, 우리어문학회, p.229

박전은 방문 또는 만드는 법을 텍스트나 그림으로 이해한 후 학습자가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체험할 수도 있다. 칠석을 현대에도 이어가는 이러한 행사를 외국학생이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생생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는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문화를 체험을 통해 학습하게 되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3. 체험 후 학습 활동과 효과

사전조사, 정보제공→문화체험→과제제시: 사진과 함께 설명글을 써서 응모→시상→전시하거나 문화체험 자료집 작성. 소감 인터뷰

체험 후 교실 활동으로는 문화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 학습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체험 후의 과제활동은 표에 나온 것과 같이 다음의 것들이 있다.

- 1) 문화 체험 시 찍었던 사진에 설명글을 써서 응모하면 뽑아서 시상
- 2) 사진과 설명글을 전시하거나 문화체험 자료집 작성
- 3) 체험 학습을 다녀와서 느낀 점 말하기, 학생 간 인터뷰

단순히 방문뿐만이 아니라 체험한 것을 통해 방문 후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더욱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보람과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칠석 교육을 통해 문화 이해뿐만이 아니라 쓰기 말하기 등의 언어활동까지 할 수 있다.

이처럼 칠석 풍속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효과는 첫째, 설화를 통해 언어 교육과 풍속을 교육할 수 있으며, 둘째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활성화 된 이러한 풍속은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현대를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교육 자료가 된다. 셋째, 현대적인 문화의 체험학습 후 언어 과제 활동까지 연계해 한국어를 익힐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칠석 풍속의 교육의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 3 절 한국어교재에 ‘칠석’ 문화텍스트 구성의 효과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단순히 언어텍스트만이 아니라 칠석 풍속과 관련한 문화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3절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견우직녀 설화와 칠석 풍속의 교재구성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준비 작업으로 기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각 언어교재에 견우직녀 설화와 칠석 풍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다.

기존 칠석 설화를 수록한 신라대학교 한국어 교재에는 설화를 문화 제시의 한 수단으로 보고 설화를 텍스트로만 제시하고 있었다.⁴⁶⁾

그러나 중국어 교재와 일본의 교재의 경우 한국어 교재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칠석 설화를 가지고 교육하는 중국어 교재에서는 ‘현대칠석의 풍습 설명과 사진-견우직녀 설화 제시- 설화내용 이해문제, 단어, 문법 등 의 언어이해 연습문제’의 순서로 수록하고 있었다.⁴⁷⁾

일본어교재의 경우 또한 중국에서 전해져오는 설화임을 강조하며 ‘중국 견우직녀 설화 제시- 일본 설화 제시- 칠석의 유래, 과거 풍속, 현재 풍속 간략제시- 칠석 풍속과 설화 내용에 대한 연습문제’의 순서로 수록하고 있다.⁴⁸⁾

이처럼 중국어교재와 일본어 교재는 단순 설화제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화와 풍속을 연계시켜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국어 교재는 설화를 풍속과 충분히 연계시켜 교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화 텍스트만 따로 제시하고 세시풍속에 대한 거론이 없다. 단순히 설화의 내용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세시풍속을 오늘날 한국 사회와 연결시켜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텍스트로서의 견우직녀의 교육적 효과는 앞에서도 이야기 하였다. 견우직녀설화는 언어 교육의 텍스트로 한국어 교재에 반드시 수록될 필요

46) 이채연(2006), 『유학생을 위한 특특 뛰는 한국어4』, 박이정

47) 중국어공부기술연구소(2009), 『중국4대 전설 다독 라이브러리』, (주)시사중국어사, pp.56~79.

48) 김희정 외(2002), 『일본어가 말랑말랑』, 시사일본어사, pp.72~73

가 있다. 본 논문은 세시풍속이 주관심사이므로 언어텍스트 구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칠석 풍속을 교재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겠다.

- 1) 학습자 각 나라의 칠석 풍속 사례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구성
- 2) (문화 제시 측면에서) 현대 칠석 풍속의 설명과 사진
- 3) 칠석 소개 글에서 어휘, 문법과 관련된 연습문제
- 4) 칠석 문화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연습문제
- 5) 한국에서 경험한 칠석에 대해 말하거나 글쓰기 할 수 있는 과제 구성

1번 항목은 칠석 풍속이 동아시아 공통으로 존재하는 이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은 자국 풍속과 한국 풍속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2번 항목인 현대 칠석 풍속의 설명과 사진의 경우 이미 일본어나 중국어 교재에는 수록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한국어 교재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함을 알 수 있다. 3번과 4번은 언어와 문화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5번 항목은 체험 후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교재에 수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설화만 제시하거나 풍속만 제시하기보다 위의 다섯 가지가 항목들이 갖춰지면 앞서서 말한 체험 전후 학습과도 연계하여 칠석 세시풍속을 더욱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다양한 공통 설화와 세시풍속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중 견우직녀 설화와 칠석 풍속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의 설화 내용과 칠석 풍속을 비교하였다. 우선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가 견우직녀 설화가 한·중·일에 공통으로 분포하는 공통 설화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 나라의 견우직녀 설화를 비교하였다. 각 언어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견우직녀 설화 텍스트를 살펴본 결과 중국 텍스트의 내용이 가장 독특하게 나타났으나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지만 헤어지게 되어 일 년에 한번 만난다는 기본적인 서사 구조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텍스트 내용의 유사성은 학습자로 하여금 스키마를 형성하게 하여 줄거리 파악을 쉽게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한국어 언어 학습을 하는데 이점을 줄 수 있다. 견우직녀 설화는 이미 중국, 일본인 학습자의 국가에서도 친숙한 설화이다. 따라서 쉽게 스키마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설화 텍스트 내용 이해뿐만이 아니라 어휘, 문법, 그 속에 들어있는 문화적인 차이 등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견우직녀 설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칠석 풍속 또한 한·중·일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칠석 세시풍속 비교를 통해서 칠석 풍속이 과거 중국에서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영향으로 과거 세 나라의 의례 풍속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세 나라 모두 과거의 풍속은 거의 사라지고 각 나라마다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것은 각 나라 문화의 독특한 점을 잘 나타내며 외국 학습자로 하여금 현재 새로운 풍속을 경험해보게 함으로써 한국 문화만의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은 현재 전통문화를 수용하면서 그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많은 지방에서 관람객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칠석 행사의 내용에는 전통적인 부분을 이어가는 칠석제 보여주기, 칠석 다례가 있었고, 전통 악기

와 춤 공연이 있었다. 또한 칠석 설화의 형태와 결합하여 남녀 연인을 이어주는 행사가 있었으며, 그 밖에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현대 칠석 풍속은 사라져가는 풍습처럼 보였으나 서울 및 각 지방에서 지자체의 발전과 함께 부활 발전해 나가는 풍속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풍속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의 경우 젊은이들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었고, 일본의 경우도 칠석 풍속이 상업적인 목적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발전되었음을 보았다. 한국의 경우 지자체의 형성과 함께 칠석 행사가 지역문화로 부활,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칠석 풍속을 부활하는 세시풍속이며, 칠석 풍속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확률이 높다. 칠석 풍속의 현대화로 미루어봤을 때 다른 풍속들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발전할 가능성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풍속은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현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학습자가 이러한 현대 칠석 풍습을 체험하면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칠석에서 한국어 문화교육이 가능한 요소들을 ‘의례, 놀이, 음식’과 ‘언어기능별’로 추출해보았다.

경우직녀 설화는 동아시아 공통설화이기 때문에 교육 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교육하기에 좋은 텍스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세시풍속이 재조명 활성화 되고 있고, 세시풍속은 민중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간파해야 할 풍속은 없으므로 여러 가지 세시풍속을 교육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칠석은 한국어 교재에 포함되어 더욱 학습자에게 제시되고 교육될 필요가 있다. 설화와 풍속이 함께 존재하는 칠석 풍습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되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어 교수 학습법은 현재 문화교육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논문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세시풍속을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문이 부족하다. 앞으로도 세시풍속과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언어와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세시풍속 교육은 언

어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세시풍속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립민속박물관(2006), 『중국대세시기. 1』,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_____ (2004), 『한국세시풍속사전(秋)』,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모로미야(2007), 『이야기 일본』, 일빛
임경순(2009),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장정룡(1988),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서울: 집문당
최영기(2007), 『세계문화체험』, 기문사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2. 교재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저(2010), 『재미있는 한국어3』, 교보문고
김성희 외(2009) 『서강한국어 3급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김중섭 외(2001), 『한국어 초급 2』,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중섭 외(2002), 『한국어 중급 1』,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중섭 외(2002), 『한국어 중급 2』,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중섭 외(2003), 『한국어 고급 1』,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중섭 외(2002), 『혼자 공부하는 한국어 중급 2』,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희정 외(2002), 『일본어가 말랑말랑』, 시사일본어사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3), 『한국어2』,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6), 『한국어4』, 문진미디어
성균어학원(2004), 『배우기 쉬운 한국어 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2002), 『한국어 3』,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2003), 『한국어 4』,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채연(2006), 『유학생을 위한 특특 튜닝 한국어4』, 박이정
이채연(2006), 『유학생을 위한 특특 튜닝 한국어5』, 박이정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9), 『말이 트이는 한국어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3), 『말이 트이는 한국어 3』, 이화여자대학
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6), 『말이 트이는 한국어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중국어공부기술연구소(2009), 『중국4대 전설 다독 라이브러리』, (주)시사
중국어사
최주열(2009), 『외국인을 위한 초급 한국어 4』, 한국문화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2』, 한
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3. 논문

장진문(2003), 「일본의 세시풍속」 『아태연구』 Vol.2 No-, 위덕대학교아
시아태평양연구소
김동환(2007), 「공유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한 방법」, 『국어 교육
학 연구』 제 31집, 국어교육학회
김수현(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에 관한 일고찰」, 『한국
문화연구』 Vol.-No.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김정아(2006), 「한국과 일본의 세시풍속과 세시식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09), 「연중행사 칠석-기원과 행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뇌뇌(2011), 「한국 추석문화 교육방법 연구 : 한·중 문화대조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경 외(2008), 「한·중·일 세시풍속과 세시음식에 대한 비교」,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Vol.18 No.3, 동아시아식생활학회
- 안미영(2008),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정신문화연구 2008겨울호』 제31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양민정(2009), 「민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Vol.12 No.4,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이경아(2007), 「한일 양국 세시풍속의 기능에 관한 고찰」,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련(2006),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부산외대 석사학위논문
- 이상혁(2009), 「한국학과 훈민정음」 『우리어문연구 35집』, 우리어문학회
- 이성희(1999),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Vol.10 No.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은숙(2010),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 중심의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고찰」 『국어문학』 Vol.48, 국어문학회
- 이정민(2007), 「세시풍속을 이용한 문화수업 모형 개발」, 『언어와 문화』, Vol.3 No.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현주(2009), 「국어교육 :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 연구 -설화를 통한 초급 과정 문학 교육」 『새국어교육』 Vol.82, 한국국어교육학회
- 최인학(2008), 「한·중·일 세시풍속의 비교연구를 위한 제언」, 『비교민족학』 제37집, 비교민족학회

최배영 외(2005), 「양주시 초등학교 4학년 세시풍속교육프로그램 연구-여름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4. 인터넷 사이트

경주 견우직녀축제(경북방송)

<http://blog.naver.com/gbn0456?Redirect=Log&logNo=5011737589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인터넷 서비스

<http://folkency.nfm.go.kr/>

당진 해와 달의 만남

http://www.dangjin.go.kr/html/tour/enjoy/enjoy_07_08_t01.html

대전 견우직녀 축제

http://tjmbc.co.kr/cnt/event/menuUrl_sub.php?mid=190&m_sub=event_03_3.html

문경 칠석차(七夕茶)문화제

<http://www.chilseok.com/>

바이두 백과

<http://baike.baidu.com/>

부사칠석놀이 사진자료(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sesi/multi_index.jsp?P_INDEX=01&DIC_ID=1488&where=LIBNAME&srhText=대전 부석사칠석놀이

부여백제 차문화제 (국립 부여박물관)

http://buyeo.museum.go.kr/culture/home/edu_02_03/main.do?cntNo=15&kind=etc

순천 칠월칠석 페스티벌

<http://blog.daum.net/spogood729/153>

여수 진세민 속놀이(남해안신문)

<http://www.n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55>

울산 칠석맞이 한마당축제

http://www.munhwa21.org/bbs/view.php?db=gallery2&id=115&s_no=107&page=6&key=&index=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민속촌

<http://www.koreanfolk.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6269>

호박전 사진

<http://angtal11.blog.me/30093667775>



ABSTRACT

A Study about Seasonal Customs Education through the Common Traditional Tale

–Focusing on A Tale of ‘Gyun-woo and Jing-nyuh’ –

Kim, Eun Seo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o use a tale of ‘Gyun-woo and Jing-nyuh’ and Seasonal customs ‘Chilsuk(July 7th in the lunar calendar)’ on the Korean education. Because ‘Gyun-woo and Jing-nyuh’ and ‘Chilsuk’ are common exist in the East Asian region, It is very useful to teach Korean Culture.

‘Gyun-woo and Jing-nyuh’ is not only famous story in Korea, China and Japan, but also it has it’s seasonal tradition. In Japan, merchant observe a Tanabata festival in July 7. In China, July 7 means the day of lovers. In Korea, many festivals and events developed by local governments and is working to develop tourism products. In the future, seasonal tradition will be developed more and more. ‘Chilsuk’ is worth noting. ‘Chilsuk’ should be used when we teac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many ways. Teaching common tale has many advantages in Korean language. Learners will have prior knowledge. It makes more easier to students to study Korean language. Seasonal

customs were developed from the past so it is worth to teach. Students can experience the seasonal tradition outside of classroom. After experience learning, students can learn more language through the various activities in the classroom. 'Gyun-woo and Jing-nyuh' and 'Chilsuk' should be actively used in Korean education.

Media based seasonal tradition teaching methods studies are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traditional Korean practice, traditional tale, Gyun-woo and Jing-nyuh, Chilsuk culture education, Seasonal Customs, Korea China Japan, Korean education, common text, East Asian

